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 평택항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즐거나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제부마리나

고려 불화를 만나다

경기평택항만공사 | 경기평택항만공사 창립 20주년

문화 콘텐츠 | 평택항 근처 문화 즐길거리를 찾아서

소설 | 핑키타운

Relax Time | 에세이

GYEONGGI PYEONGTAEK
PORT CORPORATION MAGAZINE 2021

VOL.03

SPRING | SUMMER



www.gppc.or.kr

C·O·N·T·E·N·T·S

- 06 PROLOGUE**
MZ 세대
- 08 공사 소식**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제부마리나
- 26 행천 임남재**
고려 불화를 만나다
- 42 기업인 인터뷰**
당산(당산)항 함덕(허더)해운사
(주)피에이치코리아
- 48 돋보기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창립 20주년
- 56 문화 콘텐츠**
평택항 근처 문화 즐길거리를 찾아서
- 58 소설**
박영식 장편소설 | 핑키타운
- 90 식도락**
순천식당
- 92 Relax Time**
ESSAY | 울산 토박이가 추천하는 울산 여행지
남미에서 보낸 지나간 나의 두 달
- 96 Let's GO**
부락산 문화공원
- 98 편집자 발행후기**





MZ 세대



“MZ세대가 뭐냐?” 요즘 신문과 방송을 보면 MZ세대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앞뒤 문맥에 따라 젊은 친구들을 일컫는 말이라는 건 예상했는데 줄임말 내용을 살펴보니 꽤 흥미롭습니다. MZ세대는 1980~2004년생의 밀레니엄 세대와 1995년부터 2004년 출생자까지인 제트 세대를 합친 뜻입니다. 사회의 초석이 되는 세대이다 보니 경제 용어로 활용되기도 하고 회사의 리더들에게는 이해해야 할 사회초년생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에도 가장 어린 인턴 사원은 1999년생이고 주임급 직원들 중에도 90년생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 친구들은 뭘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 가끔은 호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각계각층 리더들도 그러한지 90년대생들의 성향을 이해하기 위한 ‘90년대생이 온다’부터 ‘MZ세대 트렌드 코드’ 등의 책이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광풍부터 부동산에 좌절하는 세대도 MZ세대인데다 회사에서 자유로운 근무환경, 워라밸 등 개인주의적이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조직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만 공공기관 조직에서는 규정과 직급이 엄격한 편입니다. 옛날과 다르게 조직보다는 개인이 우선인 것은 자명한 일이나 어쨌든 조직 안에 만난 우리는 화위귀(和爲貴)를 잇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논어는 예지용 화위귀라고 일컬었습니다. 예의 쓰임에는 화합이 귀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화합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합이 개인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이부동이라 하여 타인과 친화를 우선하되,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을 다 같이 할 필요도 없고 차이점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친목을 다지며 동고동락을 하는 것만이 화합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바라봐주는 것부터가 화합의 시작입니다.

서로에 예의를 갖추고 내 의견만을 주장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줄 줄 아는 것 정도가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화합입니다. 과거 70~80년대 추구했던 공동체 의식에 부담감을 느끼는 MZ세대 친구들은 무조건 거부감을 가질게 아니라 참된 의미를 곱씹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장점과 재주를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재주만을 뽐내면 화합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길입니다. 덕승재(德勝才)는 재주가 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젊은 친구들은 물론, 조직의 모든 직원들이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재주가 있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높게 됩니다.

나의 재주만을 뽐내고 혼자 실적을 쌓아가는 직원보다 재밌고 즐겁게 일하는 조직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용식에도 늘 끝맺음 인사로 “재밌게 일하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일하는 것이 재밌을 수 있다고 되묻는다면 재밌을 수 있다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내 동료와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부디 느끼시길 바라며.

2021년 7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문학진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경기해양안전체험관
GYEONGGI MARITIME SAFETY EXPERIENCE CENTER

안산 대부도에 해양 재난과 사고를 대비한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배우는 국내 최대의 해양 안전전문 체험관이 오픈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 남는 법을 배운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체험관은 해양 재난이 닥쳤을 때 즉시 위기를 감지하고, 행동하고, 대처하는 3단계에 걸친 생존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험관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선박 탈출, 생존 수영 등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생긴 셈이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김은정 대리에게 해양안전체험관에 대해 물었다.

7월 개관을 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가상의 재난상황을 보다 실감나게 재현하기 위하여 최신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안전체험과 직접 수중체험이 가능한 대형수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마다 다른 체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지상 1층은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는 '해양안전매뉴얼관' 으로 여객선 안전체험 바닷가 생활 안전 체험, 해양안전기술체험 같은 체험과 전시물을 통해 해양안전에 대한 다각도의 교육이 이뤄집니다. 지상 2층은 '선박생존관' 으로, 선박 비상 상황에서의 생존 능력을 키우는 체험이 이뤄집니다. 선박비상 상황체험, 선박 화재진압·대피체험, 해양안전 가상 체험, 선박운항 체험까지 총5개의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생생한 체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상 3층의 '응급처치 실습'에서는 응급상황에 필요한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을 익히는 응급조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하 1층은 대형 수조가 있는 '해양생존기술 실습관' 으로, 침수선박 탈출체험, 생존수영과 선박 비상 탈출법을 배우는 해양생존체험 거꾸로 치는 파도인 이안류 체험까지 총 3개의 대형 수조 체험장에서 해양 재난 대비 실전 프로그램을 체험 할 수 있습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어떤 재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안전 교육기관의 구심점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배울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 청소년 학생 및 일반인의 해양 안전 의식과 비상 대응능력 향상
- 재난현장의 사전경험으로 재난의 조짐을 경험하며 위험감지 능력 함양
- 가상현실 체험과 실생활에 활용이 가능한 안전체험교육에 중점을 둔 연출
- 인명우선 해양사고 예방과 흥미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해양사고 생존기술 습득 등입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교육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영 주임과 함께 안전체험관을 층별로 돌아보았다.

공사 신입직원들과 함께하는 가상 체험 START!



안전체험관에 입장하면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팔찌를 착용하게 된다. 해당 체험존에서 팔찌를 찍으면 각각 체험을 이수한 인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인적사항을 적어 넣은 팔찌는 프로그램이 끝난 뒤 본인 점수가 기록되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안내 직원의 멘트에 따라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실제 체험존으로 입장한다.



체험이 시작 되기 전 과거로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커다란 영상관에서 해양선박사고에 관한 역사가 펼쳐졌다. 생생한 사고 현장을 재현하는 듯 위에서는 안개처럼 물이 분사되어 몰입감을 더했다. 아주 먼 과거에는 바다나 선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사고가 많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욕심이 지나쳐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고들도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2층에서 해양안전가상체험을 시작으로 체험에 들어갔다. 선박비상상황체험과 해양안전4D체험까지 마치고 나면 잠시 식사를 한다. 중간 중간 쉬는 시간도 있고 체험 중간에도 교관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어 어린이부터 성인들도 재밌고 쉽게 체험이 가능하다. 선박화재진압 및 대피체험은 연기력도 필요하다. 젖은 수건과 마른 수건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퍼포먼스 기계는 물론 직접 수건을 입에 갖다 대고 탈출하는 듯한 연기가 필요한 체험이 있다. 배에서 탈

출하기 위해 낙하하는 방법까지 배우고 나면 체험이 종료된다.

선박 운항체험 및 해양 안전 영상, 여객선 승선 등 다양한 체험이 이어졌다. 여객선의 선장도 되어보고 실제로 불이 난 선박에 불을 꺼보는 등 시간을 보내고 나니 시간이 훌쩍 지났다. 기본적으로 생존 기초지식을 공부할 때보다 실제 같은 생생한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 익히고 나니 받아들이는 기분이 남다르다. 곳곳에 포토존은 물론 직접 사진을 찍어 잠수부처럼 변신할 수 있는 공간도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안전체험관의 바탕이 된 세월호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세월호 사건의 간략한 개요 및 모형을 통해 사건을 접하게 되며 영상을 통해 한층 더 그 사건에 다가갈 수 있다. 특히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사고 전 남긴 영상 등을 통해 어른들이 얼마나 미흡한 대처를 하였는지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전한다. 세월호를 추모하고 나아가 우리가 배워야 할 해양 안전문화에 대한 이해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그날의 기억' 체험존이 특별하다.



모든 체험이 끝나면 리뷰 시간을 갖는다. 체험을 바탕으로 한 퀴즈 풀이 시간이 이어지며 우수 정답자는 상품도 획득할 수 있다. 끝까지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로 서로 소통하는 전개 과정이 해양안전 체험관의 매력이다. 해양사고 대처능력을 키우는 특별한 체험인 동시에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큰 추억까지 선사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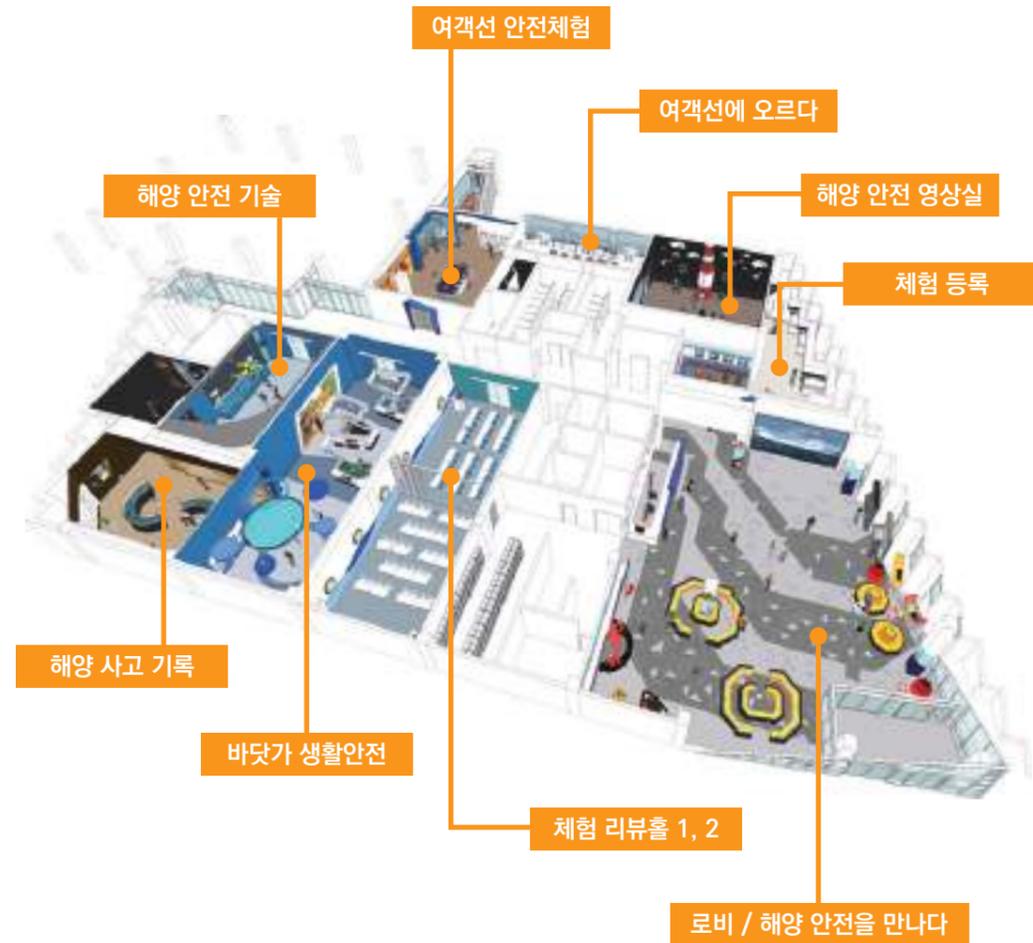
해상안전연구소

1F

해양안전 매뉴얼관 재난의 조짐을 느껴라!

해양 안전 체험교육과 사고사례, 수상해양 안전기술 체험공간

지상 1층은 해양안전을 만나다, 해양안전영상실, 여객선에오르다, 여객선안전체험, 바닷가생활안전, 해양 사고기록, 해양안전기술 등 전시관과 그 외 오리엔테이션 룸, 체험리뷰룸 등 교육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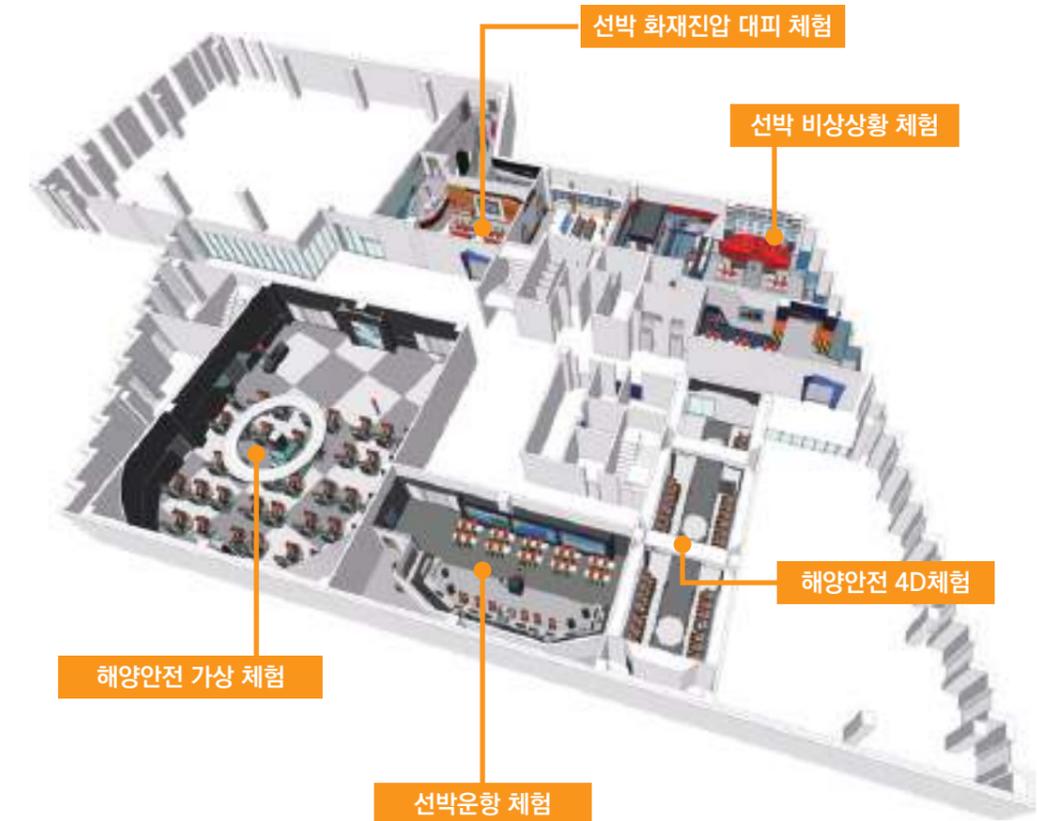


2F

선박생존관 주저없이 행동하라!

선박의 다양한 비상상황 체험과 미디어, 가상현실 체험공간

지상 2층은 선박비상상황체험, 선박화재진압 및 대피체험, 해양안전가상체험, 선박운항체험, 해양안전 4D 체험 등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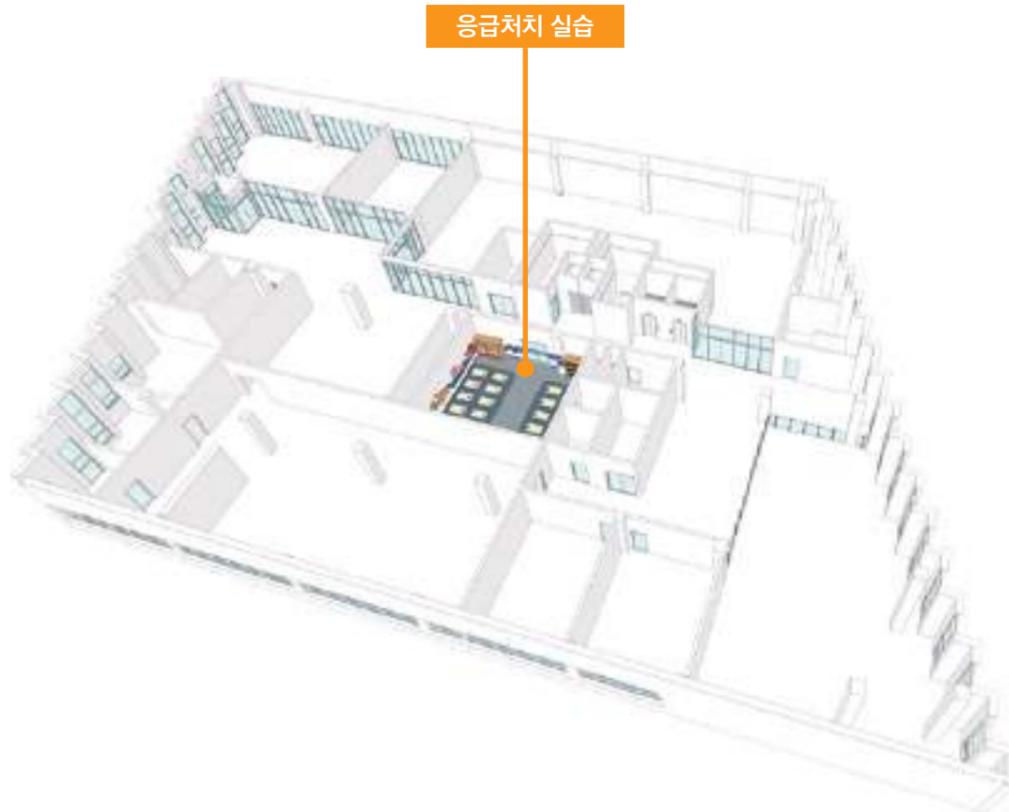


3F

응급처치 실습관 위기대처법을 습득하라!

응급상황에 따른 대처법 교육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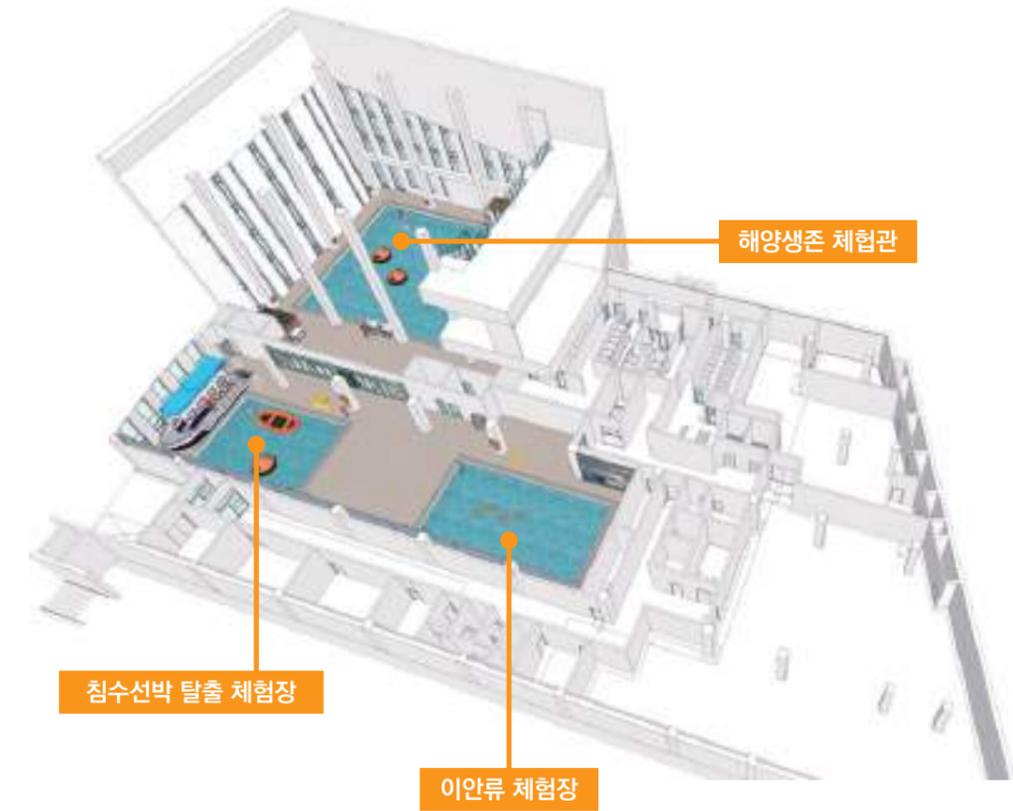
지상 3층은 응급처치실습실이 있어 심폐소생술 실습, AED사용법 실습, 저체온증 응급처치, 골절·화상·절단·출혈의 응급처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B1

해양생존기술 실습관 위기상황에서 생존하라!

실내 수조체험관으로 해양조난, 선박 침수, 익수 사고 시 현실적 위기 대응능력 함양을 위한 실전 교육공간
마지막으로 지하 1층은 해양생존체험, 침수선박 탈출체험, 이안류체험 등 수상체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의 전문적인 해양안전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능력을 키워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제부마리나



화성시 제부도 물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레저복합 시설 제부마리나가 들어서면서 활기를 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부마리나는 레저선박의 정박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식음료시설, 수리시설, 숙박시설 등이 갖춰진 해양레저복합시설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마리나를 방문하면 해외에 굳이 가지 않고도 이국적인 풍경을 누리며, 선박대여업체를 통해 요트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

마리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김종대 과장을 만났다.

Q. 제부마리나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나요?

총 300척의 계류시설과 크레인, 선양장, 트랙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제부마리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제부마리나는 경기도 서부해안 대표관광지인 제부도에 위치한 시설로 100ft급 슈퍼요트까지 수용가능한 176선석 수상계류시설과 124선석 육상계류시설 등 총 300척을 정박할 수 있는 대규모의 마리나입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IoT기반 스마트마리나 통합안전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 및 안전에 특화된 경쟁력을 갖춘 계획이며, 현재는 계류시설과 방파제 등이 조성된 1단계 기본시설 형태지만, 향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클럽하우스, 선박주유소, 선박수리소 등 2단계 기능시설 설립을 통해 완성된 해양레저복합시설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경기도 해양레저 저변확대 및 해양관광산업 육성 할 계획입니다.

실제 제부마리나의 예약은 물론 민원 담당을 하고 있는 정지훈 주임을 통해 제부마리나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Q. 제부마리나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제부마리나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제부마리나에 선박 계류를 하고 최신식 마리나 시설을 이용해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박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계류된 요트를 배경으로 인스타그램 사진 촬영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올해 10월에 개통 예정인 전곡항-제부도 해상케이블에서 바라보는 제부마리나의 전경을 느낀다면 제부마리나의 매력에 더욱 빠지실 것입니다.

제부마리나는 뜨거운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 최신식 마리나 시설을 자랑하며, 요트인이라면 누구나 방문해보고 싶은 곳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해양레저의 중심지로 성장할 제부마리나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마리나는 총 면적 100,689m²으로 해상 176석, 육상 124석의 총 300석의 국내 최대 규모, 최신식 마리나입니다. 해양스포츠와 해양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시설 집적지로서 레저선박을 보관하기 위한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선박수리시설, 급유시설, 상하가시설, 주차장 등 각종 지원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리나 기능시설(클럽하우스, 선박수리소, 급유시설)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3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능시설이 운영을 시작한다면,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마리나 인프라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마리나는 국비 301억, 경기도비 413억, 총 714억이 투입된 경기도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제주마리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와 우리 공사가 위수탁 협약을 맺어 빠른 트렌드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제주마리나의 관리운영 주체로서, 마리나를 찾아주시는 고객 한분 한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해양레저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 가치가 무궁무진한 제주마리나를 기대해 주세요.

해양레저팀

저희 해양레저팀은 제주마리나를 경기해양레저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마리나

총 714억원(국비 301억원, 경기도비 413억원)이 투입된 경기도 핵심 사업으로 국내 최신식 계류시설(해상 176석, 육상 124석)을 갖추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100,455m²)의 마리나입니다.

경기도와 우리 공사는 업무 위수탁 협의를 맺어, 최상의 고객 만족을 제공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2021년 6월 개장을 한 제주마리나는 해양스포츠와 해양레저 활동이 가능한 복합시설 집적지로서, 레저선박을 보관하기 위한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선박수리시설, 급유시설, 상하가시설, 주차장 등 각종 기능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운영 시작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 중인 마리나 기능시설(클럽하우스, 선박수리소, 급유시설)이 완공된다면, 타 마리나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비전 및 전략과제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아래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경기해양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부마리나의 입지를 단단히 하고자 합니다.

비전	경기도민 모두가 공유하고 즐기는 제부마리나항만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중심기능 수행	마리나항만 공유플랫폼 구축	지역과 상생하는 마리나 구축	경기마리나산업 발전의 중심체

주요사업

마리나 시설 유지 · 관리	부대시설 관리운영	마리나 활성화
		

- 항만시설 정기점검 및 시설 보수
- 항만구역 내 발생 오·폐수 처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실시
- 레저선박 입출항 관리 및 사용료 부과징수
- 계류 고객 관리
- 상하가 시설 유지 보수 관리
- 개항행사 개최 및 홍보
- 경기국제보트쇼 등 국내외 네트워킹
- 스마트마리나와 공유보트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양 레저 활성화

지역 관광 연계를 통한 제부마리나 활성화

제부마리나가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는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한 곳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수익 구조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10월 전곡항-제부도 해상케이블이 운영을 시작한다면, 제부마리나가 제부도 지역관광 명소 중 하나로 확고한 입지를 차지할 것입니다.

제부도는 사시사철 글램핑족이 찾는 유명 글램핑 지역으로 타 마리나와 차별화된 다양한 고객층이 제부마리나를 방문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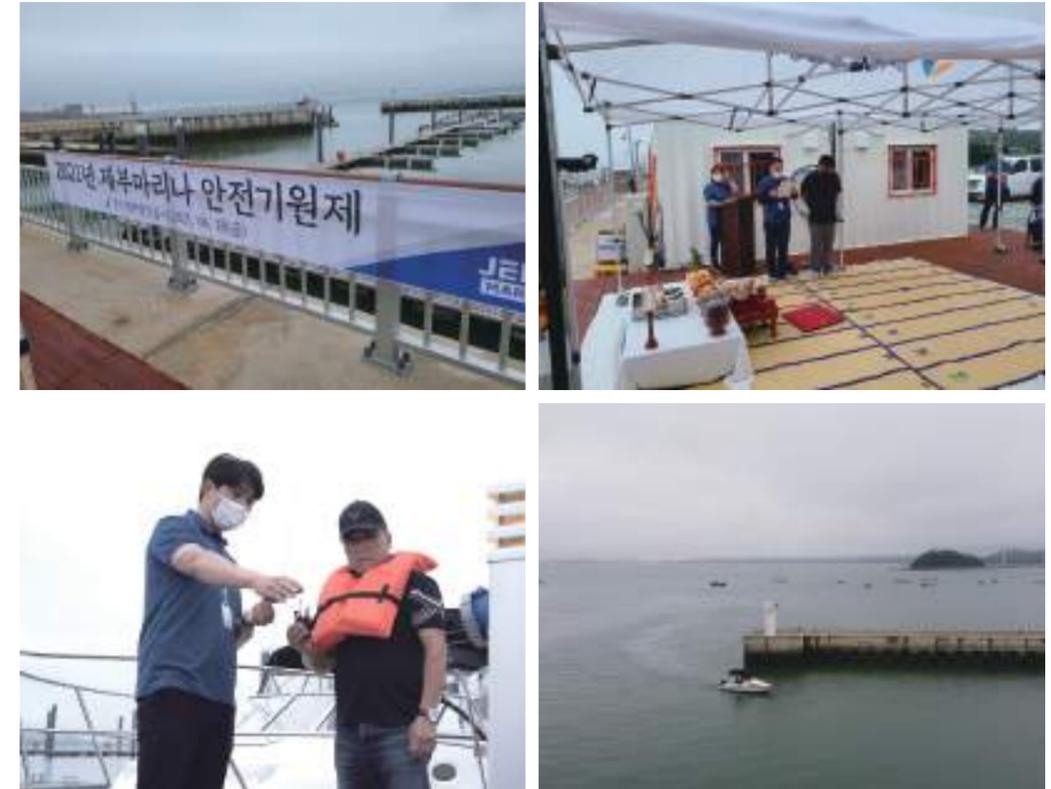
제부해수욕장은 여름철마다 해양레저를 즐기러 오는 휴양객들로 붐비는 곳으로 제부마리나의 개장은 다양한 해양레저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킬 것입니다.



안전기원제

지난 6월 18일 바닷길이 열린 제부 마리나에서는 안전기원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안전기원제는 제부마리나의 무사안녕과 무재해의 염원을 담아 하늘과 바다를 향해 절차대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들은 물론 경기도청 공무원과 제부도 지역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풍성하게 치렀습니다. 기다란 고사상 앞에 돼지머리를 비롯해 과일과 한과가 차려지고 관련인들은 앞으로 나와 막걸리를 따르며 강신의식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무재해 결의를 다지는 힘찬 구호 제창으로 식은 마무리 되었다.



마리나에 계류하는 모든 선박이 무탈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관광명소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저마다 웃으며 덕담을 나누고 앞으로의 희망을 염원하며 인사가 오갔다. 이로써 안전기원제와 함께 제부마리나의 개장이 공식화되어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이 활짝 피었습니다.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바닷길과 서해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힘찬 첫걸음이 내딛어진 순간입니다.

고려 불화를 만나다

행천 입남재

행천 입남재 선생은 평택에서 태어나 평택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예가다. 디자인 전공으로 대학에 합격했지만 미술을 반대하는 집안 사정 때문에 일찍이 집을 나와 친구들의 작품을 돕거나 그림을 팔아가며 돈을 마련해 졸업했다. 디자인을 배웠지만 학생 때부터 산속 도예촌을 전전하다 도예에 푹 빠지게 됐다. 도예의 고장 이천에서 불머슴부터 시작해 흙과 유약에 대한 정보를 쌓았다. 다시 평택에 돌아온 그는 지구상에 몇 없는 도판에 고려불화를 그려내는 도예가가 되었다.



행천도예원과 혼불제

평택은 예로부터 평평한 땅에 연못밖에 없다가하여 평평할 평, 연못 택을 써서 평택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게 됐다. 토지가 넓다보니 평택은 '음'의 기운이 넘친다 하여 혼불제를 통해 '양'의 기운으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행사가 이뤄졌다. 입남재 선생은 큰 가마에 도판을 구워내는 작업을 하다가 무사히 도자기를 굽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택을 위한 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혼불제'를 널리 알렸다.

혼불제의 시작은 도공이 가마에 불을 넣기 전 천지신께 올리는 제를 일컫는다. 평평한 땅이라 산도 없건만, 평택 끝자락에 작은 산 하나가 있는데 그 아래에서 커터란 가마가 펄펄 끓으며 도판에 대한 염원을 담는다. 이때 10t에 달하는 소나무 장작 가마가 태워지고 춤과 장구가 흥을 돋운다.

도자기로 만든 도판을 구워내는 과정에서 혼불제가 알려지고 평택의 시민들이 모여 퍼포먼스를 즐기고 기도를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 혼불제는 2009년 9회를 마지막으로 아쉽게도 중단된 상태다. 도예원에서만 혼불제 행사를 진행하기엔 작업 시간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혼불제가 중단된 이유는 하나 더 있다. 도판에 그려지는 그림이 바로 '고려불화'이기 때문이다.

행천도예원에 입남재 선생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린다. 도자기라 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호리병을 떠올





리지만 판판하고 단단한, 마치 커다란 문짝과도 같은 도자기가 여기서 구워진다. 도자기로 만든 커다란 도화지, 커다란 도판이 완성되면 임남재 선생은 고려불화를 그리기 시작한다.

고려불화

고려불화는 뭘까. 불교 경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불화라고 일컫는데 현존 고려불화는 세계적으로 약 160점이 남아있다. 이탈리아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성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 이집트에 가면 왕의 지위와 행적에 대한 기록을 그림으로 남겼다. 국내에도 당시의 종교와 말씀을 그림으로 나타낸 고려불화가 존재하지만 아직도 이 그림을 문화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종교적으로 바라보니 고려불화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종교를 넘어서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단순히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지 모른다.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송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술 자체로 받아들이고 온 종교가 함께 부르게 되는 노래처럼 말이다.



행천 임남재 선생은 정성스레 도판을 만들고 세밀한 나뭇가지를 표현하기 위해 도판을 깎아내면서 밀그림을 그린다. 불화를 양각하는 이 작업은 도판에 그린 그림을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줘 아름다움을 더한다. 이 작업이 첫 단계는 아니다. 가장 먼저 각 지역에서 도자기용 흙을 구해온다. 구해온 흙은 판에 깔아 놓고 맨발로 흙의 공기가 빠지도록 밟고 건조를 시킨다. 그렇게 다진 흙을 자연 건조시키는데 이 과정만 약 1년이 소요된다.

초벌구이는 약 900~1000℃에서 30시간 정도 굽는다. 이 과정은 여름이나 겨울에는 할 수 없다. 겨울에는 흙에 수분이 많아 흙이 얼어 작업이 쉽지 않다. 여름에는 햇볕이 뜨겁고 장마가 이어지기 때문에 도판이 갈라지기 때문이다. 4월에서 5월에 이뤄지는 작업이라 혼불제 역시 이때쯤에 이뤄졌다.

임남재 선생은 가로 1미터에서 세로는 1미터 50센티에 이르는 도자기판을 만든다. 도자기판에 유약을 바르면 다시 1230℃에서 다시 12시간 동안 한 번 더 굽는다. 재벌구이 후 그림을 그리는데 이러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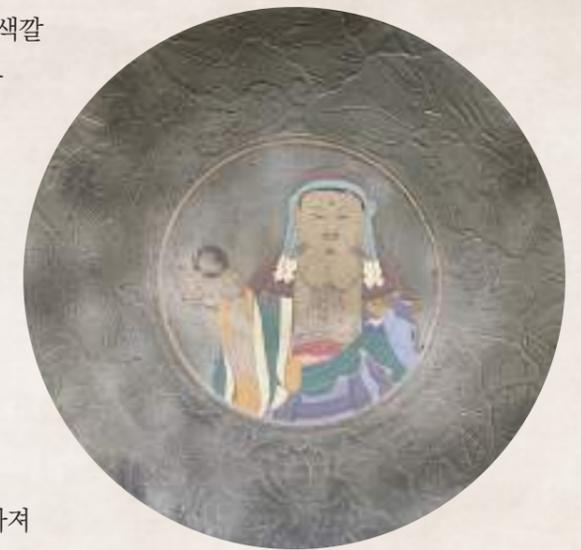


미륵하생경변상도



아미타불도

에서 도판이 갈라지거나 깨질 수도 있고 그림의 색깔이 변형될 수도 있다. 도판이 갈라지면 작업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림이 완성되고 나서도 12시간 동안 한 번 더 굽는다. 그렇게 완성된 그림은 화려한 색채를 뽐내며 보는 이들에게 평온함을 전한다.



지장보살도 접시

종교 아닌 문화

임남재 선생은 도예의 고장 이천에서 가마에 폭 빠져 있다가 우연히 일본에서 본 수월관음도를 보고 고려 불화에 빠지게 됐다. 수월관음도를 보고 전율이 일자 그는 자신이 그려야 할 작품을 받아들였다. 선조들이 만든 고려불화를 설명하는 일본 사람들을 보고는 한국에 돌아오면 본인이 직접 재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겼다. 앞으로 그는 일본에 있는 106점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세계 곳곳에 흩어진 고려불화를 모두 재현하겠다는 생각이다. 사진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고려불화를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전부 그리겠다는 포부다.

임남재 선생은 두 눈에 담아온 고려불화를 사진과 관련 서적, 불경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특히 옷의 무늬, 부처님 얼굴로 처리된 문양 등 세필작업이 많아 머리카락처럼 얇은 붓을 이용해 하루 10시간씩 몇 달을 채워 그림을 그리는데 열정을 쏟는다.

임남재 선생의 고려불화를 찾아온 사람은 많다. 멀리 미국에서 각종 잡지와 마스크는 물론이고 호주, 인도, 이태리, 캐나다는 물론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도 그를 찾아온다. 혼불제에는 각국의 도예가들은 물론 지자체 의원들까지 찾아왔다. 그러나 임남재 선생은 찾아오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내 쓸쓸함만 맛보아야 했다.

기사를 쓰겠다고 찾아온 기자들은 임남재 선생이 하고자 하는 말보다는 다른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가 선물을 하고 일본에 찾아가다가 고려불화를 하게 됐다는 다소 판타지적인 이야기로 접근을 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고려불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다소 신화적인 허황된 이야기에 임남재 선생은 물론 그의 작품을 관리하는 아내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비로자나불도



십육나한도



도판을 굽고 말리는 작업 중

없었다. 그러다보니 고려불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처럼 몇 번이나 당부 아닌 당부를 하면서 어렵게 입을 여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본의 한 신사에서 주지스님도 찾아왔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고려불화를 팔 수 없냐는 이야기였다. 일곱 번이나 매달렸지만 임남재 선생의 뜻은 확고했다. 일본에 모두 팔려버린 국내의 고려불화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게 할 수 없었다. 절대 팔지 않겠다고 말하고 스님을 돌려보냈는데 그 일로 임남재 선생은 함께 살던 분을 떠나보내야 했다.

정치인들이 찾아오는 것도 반갑지 않다. 도예원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할지 각자의 잇속만 챙기려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도 그를 찾아오지만 불교는 오히려 더더욱 반갑지 않다. 불교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화로 접근해달라는 것이 임남재 선생의 뜻이기 때문이다. 각국의 나라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불교인들도, 정치인들도 반갑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지장시왕도



천수천안관음도



오른쪽부터 백신종 전 경남도의원, 부인 최현조, 도예가 행천 임남재, 공사 장정환 사업개발본부장

임남재 선생이 고려불화를 그리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에 없는 고려불화를 재현하고자하는 데 있다.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임에도 일본에서만 보고 돌아서야했던 마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이탈리아까지 가서 성경 속 말씀을 담은 그림들은 전 세계인들이 관람하면서 고려불화는 계속 여기저기 자기들의 해석을 달고 색안경을 낀 채 보여진다. 유화, 추상화는 미술학원에서 쉽게 접하지만 고려불화를 그리는 오방색 작업은 배워보려는 이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그 씩씩한 끝맛을 느끼면서도 작업실에 꼭 박힌 채 묵묵히 그림을 그린다. 도판에 커다란 나무 조각을 그려 넣고 그 옆으로 도판의 2/3을 차지하는 커다란 광배를 표현한다. 수월관음도는 뒤로는 큰 달, 다리 아래 물이 흘러 '水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나무잎을 하나하나 그리고 부처님의 작은 얼굴들을 무늬처럼 새겨넣으면서 그는 다시 한 번 마음을 비우고 미술 앞에 겸허해진다. 세밀한 그림과 음각의 조화로 이루어진 고려불화는 자못 현려하다.

오로지 미술, 그리고 도예의 정신으로 새겨 넣는 그림 앞에서는 정치도, 불교도, 그 어떤 세상의 욕심 가

득한 말들도 사라진채 부처님의 미소만 남는다. 펄펄 끓는 불가마 속에서 단단하게 남은 도판을 바라보며 그 역시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중이다. 언젠가 팔만대장경을 그리겠다는 소망. 몇 천년의 시간이 흘러도 부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남아 후손에 큰 선물을 남기겠다는 소망. 그가 뜨거운 불가마 앞에서 채색하고 다시 굽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다.

그가 후손에 남기고 싶은 것은 불교 교리가 아니다. 오히려 몇 천년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종교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종교는 없어져도 작품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수행할 수 있기를 꿈꾼다.

취재
후기

도예원에서 보낸 시간

평택역에서 출발하여 안중으로 넘어갈 듯 꼬불꼬불한 산길을 지났다. 도시를 벗어나자 어느새 정겨운 풍경이 펼쳐지는 듯 싶더니 산자락 밑에 도착했다. 백운산은 평택과 안중에 걸쳐져 있으니 평택의 맨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189.6m로 그닥 높은 산은 아니나 산이 없는 평택의 지리를 지나오니 왠지 멋들어진 산이다.

산자락 밑으로는 흙으로 만든 황토집이 있다.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 포근해지는 이곳이 바로 도예원이다. 따로 전시관이 있는게 아니라 한옥 형식의 여러 채 안에 작품을 모아둔 곳이 있고, 작업을 하는 작업실이 따로 있는 셈이다.

차가 들어서자 두 마리 개들이 먼저 반갑게 짖는다. 개 짖는 소리와 달려 나오는 사모님의 환대에 절로 미소가 지어져 차에서 내리게 된다. 임남재 선생의 아내는 도예원의 관장이나 마찬가지다. 작품이 만들

어지는 과정, 작품에 대한 소개도 조곤 조곤 찬찬히 설명해주는 데다 경제나 행정이 수반되는 절차에도 다 직접 나선다.

카페 같은 집으로 들어가니 황토로 만든 부엌에 널찍하게 펼쳐지고 그 옆 마루에는 아직 순서를 기다리는 작품들이 늘어져있다. 다 나무로 만들어진 포근한 분위기에 마음 한 칸이 또 다시 넉넉해진다. 동그란 원형 탁자에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았다. 사모님이 다도 다기와 차맛을 들고 앉았다. 정갈한 다도 테이블 앞에서는 또 다시 마음이 차분해지고 깨끗해진다. 차맛을 우려 내린 녹차 한 모금을 들이마시자 산의 정기를 마신 듯 깨끗한 기운이 몸 안에 감돈다.

자리에 앉아 임남재 선생이 고려불화에 빠지게 된 이야기를 술술 읊기 시작했다. 처음 일본에 가서 고려불화를 봤을때의 감동이 떠오른 듯 그의 눈빛이 다시 맑게 빛나기 시작했다. 흰 수염을 기르고 한복을 입은채 도인(道人)의 모습으로 앉은 그는 장인의 모습이 가까웠지만 과거를 떠올린 그는 이제 막 도예에 빠진 젊은이의 설레임을 연상케했다.

사모님이 전문가처럼 작품을 소개한다면 임남재 선생은 작품에 대한 무한한 열정을 소개하기 바쁘다. 본인의 꿈,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갖고 작품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는 모습은 순수한 예술인의 모습 그 자체다. 기사 작성을 위해 이것저것 질문하자 답변은 사모님이 나선다. 그동안 손수 쓰셨던 자료까지 넘겨주시며 큐레이터 역할을 톡톡히 하신다.

순수하게 예술에 대한 열정만으로 시작한 일인데 정치인과 종교인들에 치인 그들은 끝까지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또한 재미있는 기삿거리를 위해 일본으로 가서 선몽한 일도 부풀려지지 않길 원했다. 그들이 시작하게 된 계기, 그 마음 하나만으로 써내려가기를 원했다. 그분들에게 누가 될까 글을 쓰는 내내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가장 걱정이었다. 부디 그들의 고려불화 원대한 소망을 미약하게나마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본다.

사진·글 / 김혜정

당산(탕산)항 합덕(허더)해운사



당산항합덕해운유한공사
집행동사겸총경리
이문웅

기본 상황

당산(탕산)항합덕(허더)해운유한회사(이하 '탕산항 합덕'이라 함)는 중국 당산(탕산)항그룹 산하의 해운회사입니다. 당산(탕산)항그룹 해운 분야의 핵심 부문으로서, 주로 국내외 무역 컨테이너 항로를 운영합니다. 현재 환발해 지선이 8개 항로, 중국내 무역 간선이 11개 항로, 대외무역 근해 항로가 5개 항로 개통되었습니다. 그 중 환발해 지선은 반진(판진), 진주(진저우), 수중(수이중), 진항도(친항다오), 천진(텐진), 황화(황화), 유방(웨이팡) 및 룡구(룡커우) 항구로 통하고, 간선은 상해(상하이), 태창(타이창), 강음(장인), 남경(난징), 작보(자푸), 영파(닝보), 온주(원저우), 복주(푸저우), 남사(난사) 등 항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통된 대외무역 항로는 한국 부산과 평택, 일본 관동(간토), 관서(간사이)와 구주(규슈) 등 7개 중심 항구에 직통 연결되고, 한국 부산항을 환적항으로 하여 일본의 26개 항구로 연결되고, 그 중에서, 발해만 구간의 항로를 보충하면서 한일항로 화물 운송이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당산(탕산)항그룹의 발전 계획 중 경당(징탕京唐)에서 한국 평택에 이르는 항로에 대해 중점 개발 및 지원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한국 항로의 개발 전망 및 안정성을 더 잘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항로 상황

당산(탕산)항 경당(징탕京唐)항구에 한국 부산, 일본 관동(간토), 관서(간사이)와 구주(규슈) 컨테이너 항로를 개통한 후, 한·중 양국협회 및 교통주관부서와의 협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회원사

() : 중국 병음 발음표기

로서, 교통운수부와 외교부 등 국가 부처의 강력한 지원으로, 마침내 11월17일 당산(탕산)항-평택항 컨테이너 항로의 항로운항권을 승인 받게 되었고, 2020년12월19일 당산(탕산)항-유방(웨이팡)항-평택항 컨테이너 정기선항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내지(腹地) 화물 및 그 흐름

당산(탕산)시는 수도를 둘러싼 경제권 중 핵심 산업도시이자 철강도시로 입지적 우위가 뚜렷합니다. 이는 평택에서 수많은 화물을 구매 수입하는 곳으로, 강재, 기계제품, 도자기 제품, 월, 화학제품, 냉동고추, 야채 식품 등 다양한 품종을 취급하는 데, 매 달 컨테이너 수출량은 약 1,500개 컨테이너에 달합니다. 유방(웨이팡)항은 산둥반도 북부, 발해만 남쪽 내지(腹地) 병주(빈저우)에 달하고, 임기(린이), 덕주(더저우), 제남(지남) 등 산둥 서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제내에는 웨이차이(灘柴), GOERTEK(歌尔), 하이화(海化), 시왕(西王)과 같은 세계 500대 기업이 입지해 있습니다. 한국 수출 화물에는 주로 기계설비, 석재, 타일 건축재와 냉장야채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서 당산(탕산)과 유방(웨이팡) 대외무역 컨테이너 항로의 보충 지역을 효과적으로 확장시키고, 많은 한국 수출 입 기업을 위해 새로운 물류 통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장점

- 1) 운항 스케줄이 안정되고, 선박의 운항 속도가 빠릅니다. 주 1항차의 스케줄로 매주 수요일 평택항에 도착합니다.
- 2) 당산(탕산)항과 유방(웨이팡)항은 천진(텐진)과 칭도(칭다오)에 비해 화물통관의 효율성이 높고, 컨테이너 픽업이 빠르며 물류비용도 절감됩니다.
- 3) 컨테이너 공급의 보장이 잘 되어있습니다. 허더(합덕)해운사는 드라이 컨테이너(DC), 리퍼컨테이너(RF), 하이큐빅 컨테이너(HC), 절반높이 컨테이너(Half-Height Container), 플랫폼 (FLAR RACK) 컨테이너 등 다양한 종류의 컨테이너 7만 여대를 항로에 투입시켜 서로 다른 고객들의 수요를 만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 4) 당산(탕산)항 환발해 지선과 철도 운송 자원으로 인해, 화물의 운송 서비스 범위는 전주(진저우), 심양(선양), 황하(황화), 석가장(스자좡), 유방(웨이팡), 임기(린이), 산서(산시), 영하(닝샤), 내몽고(네이멍구), 흑룡강(헤이룽장) 및 기타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허더(합덕)해운회사는 시종일관 한국 항로를 일류 항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항구 환경, 부두 종합 서비스, 컨테이너 공급 보장, 운송 네트워크 확장 및 보세 다국적 전자상거래 정책 등의 측면에서 많은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피에이치코리아



(주)피에이치코리아
총괄본부장 김진철

본인 소개

평택항과 항만배후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후배님들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반갑습니다.

(주)피에이치코리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진철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귀공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1년 평택항 최초 한중 카페리항로를 개설한 대룡해운(주)의 창립멤버, 2005년 개장한 한중 카페리 화물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하역회사 대아항운(주)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소속회사 (주)피에이치코리아는 2015년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내 항만배후부지 우선대상자로 선정되어 2017년 7월부터 영업 개시하였으며 현재 총괄본부장(상무이사)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

(주)피에이치코리아의 대표 Biz Model은 '하나로지원센터'로써 전자상거래 및 LCL화물 전용 작업장을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사무실 제공에서 수출입 통관업무 이행까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하나로지원센터'는 출발부터 당사의 운영 취지와 관련 기관의 해석 차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평택항창고연합회와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내 기존 입주사와의 긴밀한 협의와 배려를 통해 당사는 LCL 화물, 외국의 반도체 장비 소재 보관·운송,

상용차 보관, 중국 자동차 PDI를 거쳐 2021년 2분기부터 전기자동차 'T社 PDI'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이용 장점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유보, 조세감면, 기반시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무역진흥·국제물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전국에 평택당진항을 포함해 인천항·광양항·포항항·부산항 총 5 지역뿐이라 하니 분명 지정한 이유와 장점은 있는 듯합니다.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의 위치는 물류에 필요한 무역항과 산업단지·창고·운송 등 다양한 연계 산업이 집중된 곳으로 이용자 및 입주자에게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인근에는 고속도로 5개, 철도 5개 노선이 연결되어 있고 건설 중에 있는 '사통팔달' 교통망이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하반기 개통 목표로 건설중인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 송산면을 연결하는 서해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증장기적 측면에서 서해안권 물류수송체계 구축 및 유라시아 철도연결 기반을 구축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용자에게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은 화물량이 컨테이너 1개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화물

2021년 회사의 비전과 성과

2021년 1분기 당사가 취급하는 업종이 일반화물에서 자동차로 변환되는 짧은 기간에도 화주사 자사보다 당사에 이해와 격려를 해주셨던 화주사에 심심한 사과를 거듭 드립니다.

평택항에 뿌리를 내린지 20여년간 해운선사, 하역회사, 물류회사를 거쳐 자동차 PDI 업종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PDI업종은 그동안 경험했던 업종과 산업적 연관성도 없으며 업계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는 선발주자가 남겨 놓은 발자취를 취사선택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선발주자가 구축한 기술적·자본적으로 고객사에게 전달된 믿음이 후발주자는 불안하다는 이미지 측면의 인지적인 장벽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되는 변화가 큰 시기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며 또한 시장 초기 진입하여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가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기자동차 PDI의 선도주자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목표와 경영방침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평택항에서의 화물·여객 운송, 하역회사, 물류창고 등의 운영 경험을 살려 전기자동차 PDI 분야에 안착하는 것입니다. 앞서 열거한 업종과 전기자동차 PDI업종은 언뜻 보면 다르게 보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피에이치코리아 저변에는 타인이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하여 동료와 함께 포기하지 않고 실력을 쌓아 행동으로 옮겨 된다고 증명해온 사람 중심의 기업 철학이 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 자금·인력·기술 부족과 업계 집중 견제의 어려움을 겪고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고객과 직원을 존중하며 긴 호흡으로 투자하여 100년 기업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영업과 화주 유치에 과정에서의 에피소드, 루틴 업무

하나, 2001년 평택항 한중카페리 선사에서 근무하던 시절입니다. 컨테이너 영업을 돕기는 해야했는데 부족한 방법이 없어 단순하게 제가 다니던 선사의 중국 선적항과 유사한 선사의 컨테이너 부두 밖에서 컨테이너 운송차량을 기다렸다가 제 차량을 이용하여 따라 갔습니다. 도착지가 어디인지 모르니 컨테이너 운송차량이 고속도로로 진입하면 저는 회차 했습니다. 그런데 안산, 안성, 오산, 용인 등 평택시와 접한 지역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송차량이 가끔 있었고 해당 운송차량이 도착하면 저는 위치와 회사 이름을 포함한 정보를 영업부에 전달하여 화물을 유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업체 하나 하나가 영업맨들의 땀과 눈물의 댓가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둘, 2017년 봄 (주)피에이치케이의 물류창고 준공은 다가오고 2016년 사드(THAAD) 상주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보복이 최고치로 다다를 때 중국에서 당사 부지를 이용하기로 했던 화주가 투자와 물량을 철회하였고, 전자상거래 물량은 관련 기관과의 해석차이로 취급할 수 없어 막막해 있던 때입니다. 무턱대고 자유무역지역내 당사가 위치한 그림과 조성중인 야드와 물류창고 사진·도면을 가지고 반도체 장비를 분해하여 수출하는 천안 소재 업체와 평택항 인근 중국자동차 딜러사를 찾아가 당사 이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 드리러 찾아 갔습니다. 일면식도 없으니 문전박대를 예상하고 몇 번 두드렸더니 홍보할 기회를 주셨고 막상 설명회 당일 얘기는 거의 못했습니다. 반도체장비 및 자동차 분야를 며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비 고객사 직원은 땀흘리고 버벅대는 제게 해당 분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당사에 관심을 보여주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당사의 영업개시와 더불어 유치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원자재를 보관 운송하는 다국적 물류회사와 장기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서비스 중에 있으며, 상기 중국자동차 업체와는 2년간 협업을 마쳤습니다. 우연하게도 당사의 관심업종과 유치업종이 동일했습니다.

제 루틴업무는 하나, 머리가 좋지 않아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되집어보고 다음 날 중요한 일정을 체크하는 20년된 습관입니다.

둘, 회사에 출근해서 매일 동부두 1번에서 8번 부두와 항만배후단지를 차로 순회하며 물류의 흐름과 감각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회사와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PDI 사업에 집중해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전기자동차 PDI 선도주자로서 사업모델을 부품센터·리페어·진단 등 다양화하여 전기자동차 종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은 평택 내연기관 PDI 시대 만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 후에는 평택 전기자동차 PDI 시대를 개막한 (주)피에이치코리아로 회자(膾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중부권 지역 관문인 평택항의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은 향후에도 경쟁지역에 상당한 비교우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물류의 혈관인 교통 측면에서 어느 지역과도 통할 수 있는 고속도로, 국도, 철도가 계획에 맞춰 개통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과 협력(Co-Work)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평택과 평택 인접지역에 산업시설이 대규모 집적된 장소인 산업단지가 총93개(평택시15개, 아산시12개, 천안시12개, 당진시8개, 안성시21개, 용인4개, 오산시3개, 화성시15개, 안산시3개)가 분포되어 있으며 추진 중인 산업단지 수도 10여 개가 넘습니다. 또한 고덕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완전 가동과 해외 주둔 미군기지 중 가장 큰 규모인 평택 미군 험프리스(Humphreys)기지도 자유무역지역에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자유무역지역의 확대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공사에 바라는 점

외부에서 자유무역지역까지의 접근성이 어려워 대부분 출퇴근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가 차량들이 도로 왕복 한 차선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을 마련하여 안전과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건의 드립니다.

2021년 7월부터 물류 업무에 외국인 근로자(H-2) 고용을 허가하기로 했으나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평택항 및 항만배후단지 물류업체에서는 내국인 일용근로자는 웃돈을 지불하고서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인력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물류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류업 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위해 정부에 건의를 바랍니다.

선사·포워더·수출입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설명회 기사와 평택항 글로벌 활성화 촉진을 위해 중국 여러 도시와 아세안 등 해외 투자 설명회 기사를 포스트 코로나에도 자주 접하길 바랍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창립 20주년

1.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추진 배경

2000년 평택항은 3대 국책항만으로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의 산업 및 소비의 중심지인 수도권·중부권에 위치하여 내륙운송비 절감등 수도권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대폭적인 개선과 경영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항구 임에도 IMF로 인한 민간 기업의 참여 포기와 정부 예산의 한정으로 개발 지연

경기도는 개발이 부진한 평택항 건설사업 촉진과 항만의 조기 활성화 기반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 역할을 담당할 주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

2.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목적

항만 물류시설의 조성, 임대 및 운영, 항만 인프라 개발촉진과 항만 마케팅 추진을 통한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

3.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의의

전국 항만관리 기업으로서 국내 유일의 지방공기업

4.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추진경위

- 2000년 10월 11일 평택항 별도법인 설립 방침 결정
- 2001년 03월 05일 경기도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 제정 공포
- 2001년 04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서부두운영사업자 선정 공고에 선사, 하역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및 응찰
- 2001년 05월 22일 평택항 서부두 2개 선석(현재 서부두 6, 7번부두)에 대한 부두운영권 확보
- 2000년 05월~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준비추진위원회 개최(5회)
- 2001년 06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과 평택항 서부두 임대차 계약 체결
- 2001년 07월 16일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 2001년 07월 16일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5.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 추진

1) 평택항 안정적 부두운영기반 조성 및 평택항 조기 활성화(2001~2004)

·평택항 서부두(현재 6~7번) 운영

- 부두규모 : 3만톤급 2선석, 연간 1,130천톤
- 취항항로 : 중국 대련/천진, 상해/홍콩/하이퐁, 중국 영성
- 화물처리실적 : '01년 20,561TEU, '02년 66,270TEU, '03년 151,009TEU, '04년 182,764TEU

·지정 및 기여시설 사업

- 항만운영 지원기관(C.I.Q) 합동청사, 항만근로자 휴게소 등 건립
 - ※ 사업비 4,226백만원('01~'03)
- 서부두 배후지 개발 및 다목적 창고 등 건립
 - ※ 사업비 3,954백만원('01~'04)

*C.I.Q : 항만으로 출입국시 거치는 3대 수속, 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2) 평택항 항만인프라 구축 및 항만마케팅 통한 평택항 활성화(2005~)



2006. 5.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개발



2007. 12.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2009.1.
포승물류부지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2009. 3.
평택항 마린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2009. 11.
평택항 마린센터 준공

2005. 4.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위탁 관리·운영



2010.9.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준공



2010.12.
평택항 자동차 수출입처리
국내 1위 달성



2011.7.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하수처리시설 준공



2011.9.
평택항 1단계(자유무역지역)
관리운영

2012.9.
포승물류부지 현물출자



2012.12.
평택항 총 물동량 1억톤 돌파



2015. 10.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성과 보고대회
'우수기관' 수상



2017.9.
경기도 해운물류
청년 취업아카데미



2018.6.
경기도 중소기업물류지원 사업

2019.10.
평택항 국제포럼



2020. 12.
평택항 마린센터
태양광 발전사업



2013. 9.
평택항 자동차 수출입처리량
누적 1천만대 돌파



2020.12.
제부마리나 관리운영

2020.12.
평택항 컨테이너물동량
79만TEU 달성



2021.2.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운영



2021.5.
평택·당진항 2-3단계(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사업의향서 제출



2021.6.
평택·당진항 2-1단계(1종) 항만
배후단지 조성공사 착공

평택항 근처 문화 즐길거리를 찾아서

평택항 홍보관 > 마린센터 전망대 > 평택호 > 평택호 지영희 국악관 및 한국소리터



평택항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방문하기 좋은 곳은 평택항 홍보관이다. 평택항의 첫 태동부터 발전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현재는 1층에 카페 운영을 위한 공사 막바지에 있으며 8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다. 보다 저렴한 커피 가격을 제공하고 있어 평택항을 둘러보는 '갯성비 공간'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더 높은 곳에서 평택항 전망을 즐기고 싶을 땐 마린센터 전망대나 마린센터 15층 레스토랑을 추천한다. 인근 가장 높은 건물에서 평택항 부두와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좀 더 유원지 느낌은 평택호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평택호에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평택 출신 예술인 지영희를 기리는 지영희 국악관과 지영희 홀(공연장) 등이 존재한다.

2011년 개관한 한국소리터는 다채로운 공연과 교육 체험 프로그램,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세련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 하고 있다. 평택호반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관광 휴양 공간으로 관광단지에 조성된 공연장이다. 이외에도 569석이 갖춰진 지영희 홀(공연장, 카페)과, 농악마을(야외공연장), 어울림동(게스트하우스, 지영희 국악관, 강의실, 회의실), 두드림동(사무실, 연습실, 녹음스튜디오)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통의 두드림! 창작의 어울림'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6~7월 버스킹 공연인 "마실! On 가락"과 7월, 10월에 계획된 기획공연들을 통해 지영희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은 국악전문 공연장으로 발돋움해 한국소리터만의 환경과 콘텐츠 구성을 앞두고 있다.



지영희홀

평택시의 문화예술 거점으로서 관내 문화예술을 육성할 목적으로 2011년에 개관한 한국소리터는 공연장 지영희홀은 569석의 프로시니엄 극장입니다. 소리의 울림이 명료하고 잔향이 우수하여 전통 공연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공연예술장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평택농악마을(야외공연장)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지는 300인 이상 수용 가능한 노천극장이다. 아름다운 평택호반을 배경으로 전통상설공연이 펼쳐져 공연자와 관객이, 전통과 현대가 소통하는 문화 공간입니다. 무대 뒤편에는 출연진들을 위한 분장실과 준비공간이 있으며, 한국소리터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공연시설입니다.



어울림광장

어울림광장은 두드림동과 어울림동 사이에 형성된 광장으로 매주 주말마다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과 예술활동이 펼쳐지는 문화의 장입니다. 어울림광장의 심볼인 날개 계단은 SBS 월화드라마 "닥터이방인" 촬영으로 한국소리터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박·영·식·장·편·소·설

핑키타운



▶▶▶ 전편에서 계속

괴물

도둑이 든 일로 권 교감은 다시 극심한 불안에 빠졌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이층 침실에 틀어박혀 꼼짝도 안했다. 저녁밥도 쟁반에 담아 침실로 갖다 줘야 겨우 몇 손가락 들다 말았다.

“뭔가 이 집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틀림없어. 도둑놈이 왜 값비싼 물건에는 손도 안 대고 서류봉투 하나만 훔쳐갔을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

말하는 중에도 권 교감의 눈알이 자꾸만 위로 돌아갔다.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보다도 권 교감의 상태가 더 불안하고 무서웠다.

“더 이상한 건 그 서류봉투가 이 집 지하실에 있다는 사실을 도둑이 알고 있었다는 거야. 자기야, 무서워 죽겠어. 이 집에 아주 끔직한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해. 기도현 선배가 이 큰 집을 자기에게 넘겨준 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치? 내 말 맞지? 뭐라고 말 좀 해봐.”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행에 가까운 도현 형의 행적은 권 교감에게 감동적인 드라마 그 자체였다.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도 넘어서 애절한 사랑의 서사시였다. 그런데 한순간에 뒤집어졌다.

“이 집에 뭔가가 어른거리. 분명히 느껴지긴

하는데 뭔지를 모르겠어. 뿔속까지 스며드는 이 음울한 기운을 자긴 정말 못 느낀단 말이야?”

권 교감은 뭔지 모를 극적인 파탄을 암시하는, 매우 불길한 징조가 느껴진다고 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물론 나와 권 교감이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건 도현 형과 도현 형의 장모인 유미연, 그리고 정체불명의 도둑 간에 얽힌 일이다. 숨겨진 비밀이 무엇이든 나와 권 교감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도둑의 정체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다. 도둑은 도현 형의 편지를 읽고 난 뒤 없애지 않고 바닥에 떨어뜨려 놓았다. 결코 실수는 아니다. 도둑은 편지 말고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프로페셔널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건 자신의 존재를 알림과 동시에 어떤 메시지를 남긴 행동이 아니었을까? 물론 내게는 아니다. 아마도 노란 서류봉투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즉 유미연에게 전하는 무언의 메시지일 것이다.

유미연에게 전하고자 했던 도둑의 메시지는 뭘까? 그리고 그 노란 서류봉투 안에 든 물건은 무엇일까? 그 물건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이 사건의 배경과 도둑의 정체에 바짝 다가갈 수 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유미연 뿐이다. 그런데 유미연의 태도로 보아 절대로 내게 말해 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다른 방도가 없다. 발로 뛰어 직접 알아보는 수밖에.

도둑의 정체와 도현 형이 남긴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일어났다. 동시에 삼류작가의 진부한 상상력이 발동되기 시작했다. 이 특별한 도둑에게는 뭔가 남다른 사연이 있을 것이다. 눈이 깊숙하고 몹시 야윈 한 사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 헤진 겨울외투와도 같은 우울함을 두텁게 껴입고 사는.

목격자를 찾아볼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서 있어봐야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데가 이 동네다. 경비업체를 찾아가 CCTV 영상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다.

“혹시 지난 22일에서 24일까지 영상을 보시려는 것 아닙니까?”

경비업체 직원이 묻는 소리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소름까지 돋았다.

“예? 그...그걸 어떻게...?”

“어제도 핑키타운에서 한 분이 오셨거든요.”

“누...누...누가요?”

“나이가 좀 드신 남자분이신데, 규정상 고객의 신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유미연의 집사였을 것이다. 도둑을 자기 손으로 잡겠다는 말은 허풍이 아니었다. 이걸 보면 노란 봉투 속의 물건은 유미연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왜 도현 형은 그렇게나 중요한 물건을 사후에, 그것도 나를 통해 장모에게 전해주려 했던 걸까? 아마도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세 사람 사이에 얽혀 있을 것이다. 나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입안의 침이 마르며 가벼운 전율마저 느꼈다.

그런데 유미연이 나보다 하루 빨리 움직였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승부욕으로 나는 초조해졌다. 물론 전에 없던 일이다. 감히 내게 승부욕이 라니.....

“이걸 보시면 됩니다. 우선 22일 18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녹화영상물입니다. 카메라 영상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도록 16개 채널을 동시에 올려놨습니다.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 2배속 4배속 8배속 16배속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내게 컴퓨터 모니터를 넘겨주고 다른 책상으로 가 앉았다.

“그런데 원하시는 것 못 찾을 겁니다. 어제 그분도 밤늦게까지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지만 결국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기운이 빠졌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다. 유미연의 집사가 도둑을 찾아내고도 아닌 척했을 수도 있다. 유미연의 말에 따르면, 절대 이 절도사건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역사는 밤에 이뤄지는 게 아니었다. 최소한 핑키타운에서는 그랬다. 처음엔 4배속으로 보다가 8배속, 16배속으로 바꿨다. 속도를 아무리 높여도 정지화면과 다를 바가 없었다. 딱 네 차례 화면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19시 27분 남재욱이 탄 승용차가 4호로 들어갔고, 이어서 52분 한유경의 승용차가 들어갔다. 23시 20분 조미영의 딸이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다음날인

23일 새벽 01시 27분 최도철의 승용차가 3호 앞에 섰고 대리운전자로 보이는 사내가 최도철에게 차키를 넘겨주고 언덕 아래로 뛰어 내려갔다. 조미영은 외박을 했는지 아침 06시까지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 녹화영상물도 마찬가지로였다. 낮에도 택배직원이나 우편배달부 외에는 오가는 사람이 없었다. 어디에도 도둑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결국 나도 허탕을 치고 짓무른 두 눈을 비비며 경비업체 사무실에서 나왔다. 곧바로 집으로 올라갈까 하다 상가지역에서 택시를 내렸다. 피곤하고 무엇보다 갈증이 났다. 자주 가는 치킨집으로 들어가 생맥주를 시켜 마셨다. 2000cc를 마셨으니 내 주량으론 과음한 셈이다. 풀린 다리로 핑키타운으로 향한 언덕길을 올라갔다.

언덕길을 다 올라가 가쁜 숨을 내쉬며 무심결에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문득 언덕길 중간쯤에 있는 24시 편의점 생각이 났다. 편의점은 어디나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놓는다. 그리고 누구든 핑키타운에 오려면 반드시 이 언덕길을 통해야만 한다. 어찌면 도둑이 편의점의 카메라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허겁지겁 언덕길을 내려갔다. 편의점 안에는 아르바이트 학생 혼자 있었다. CCTV 얘기를 하자 자기는 모른다고 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사장님이랑 교대하거든요. 그때 오셔서 물어보세요.”

다음날 아침 일찍 권 교감의 밥상만 차려주고 24시 편의점으로 내려왔다. 7시 반이 되자 주인이 스쿠터를 타고 언덕길을 올라왔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맥주나 라면 등을 사러 들리는 편이라 편의점 주인과는 서로 낯을 아는 사이다.

주인이 편의점 구석에 있는 작은 골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간신히 책상 하나만 들어가는 좁은 방이었다. 주인이 CCTV 녹화기의 작동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줬다.

경비업체 CCTV를 볼 때와는 전혀 달랐다. 큰 길가라 통행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 4배속으로 맞춰놓고는 바짝 긴장을 하고 뚫어지게 모니터를 쳐다보아야만 했다. 그런데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이 있다. 경비업체 CCTV를 볼 때는 몰래 핑키타운으로 잠입하는 자만을 찾아내면 되었다. 그자가 도둑이 틀림없을 테니까. 그런데 24시 편의점 CCTV는 경우가 달랐다. 편의점 앞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도둑인지를 가려낼 방도가 없었다.

처음엔 도둑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보이면 시각과 인상착의를 메모했다. 그거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이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순전히 느낌에만 의존하는 거였다. 그리고 도둑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니 모두가 의심스러웠다. 결국엔 메모를 하던 볼펜을 내던지고 말았다.

역시나 탐문수사의 기본은 끈기라는 말이 맞았다. 헛수고라고 생각하면서도 끈질기게 모니터를 쳐다본 보람이 있었다. 23일자 14시 37분의 영상에서 60대 중반의 노신사가 편의점 앞을 스쳐 지나갔다. 언뜻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어디서 봤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모니터를 끄고 편의점 밖 길을 서성이며 기억을 되살리려 애를 썼다. 그러길 이십여 분, 드디어 기억이 떠올랐다. 맞다. 이 노인이다. 확신에 가까운 예감에 진저리가 쳐졌다.

나는 편의점 안으로 뛰어 들어가며 주인에게

소리쳤다.

“아저씨, 이 영상 캐…캐…캡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병원 영안실에 도현 형의 빈소를 차려 놓은 다음날 오후였다. 문상객들 중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대부분의 문상객들이 음악에 관계하는 사람들이라 젊고 복장이나 행동이 자유분방했다. 그런데 머리가 하얗게 쉰 60대 중반의 노인인데다 어느 모로 보나 매우 점잖은 신사였다.

노인은 정중하게 분향을 하고 영정에 절을 했다. 누군지 궁금했지만 묻지는 않았다. 노인은 문상객들 틈에 끼어 앉아 홀로 소주를 마셨다.

문상객들이 잠시 한산해지자 그 노인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선생님께서 고인의 평창동 저택을 물려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생면부지의 노인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

“누…누…누구신데요?”

“저는 고인의 외가 쪽으로 먼 친척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그러십니까? 그런데 무…무슨 일로?”

나는 도현 형의 재산 상속 문제로 온 사람이라 단정했다. 본능적인 경계심이 일었다.

“고인의 유품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제가 마…맡고 있습니다. 사…상속 문제라면 벼…변호사 사무실로 가보십시오.”

“아닙니다. 아녜요.”

노인이 손을 내저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쭙봤을 뿐입니다. 상속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가라고도 할 수 없는 먼 친척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일가붙이도 아니신데 고인의 장례를 치르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내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바로 영안실에서 나갔다. 그리곤 그 노인을 다시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노인이 CCTV 영상에 나타난 것이다.

도현 형은 내게 남긴 편지에다 빛바랜 낡은 증명사진 한 장 말고는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외가 쪽의 친척이라고 자처했던 그 노신사가 도둑이 든 날에 맞춰 이 동네에 등장한 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나는 조미영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다. 도둑의 신원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다. 조미영이 바빠서 낮에는 만날 수 없다고 했다. 대신 9시뉴스 끝나고 데스크 회식이 있는데, 급한 일이면 그리로 오라고 했다.

조미영이 문자메시지로 보내온 시각에 맞춰 회식장소로 갔다. 여의도역 근처 가라오케였다. 입구에서 조미영의 이름을 대자 웨이터가 안쪽 깊은 룸으로 안내했다.

온통 회칠을 한 벽에 짙은 호두 빛깔 마루와 철제 벽면 장식이 마치 중세유럽의 응접실에 들어와 앉은 것만 같았다. 어느 모로 보나 내가 다녀본 노래방과는 전혀 달랐다. 비밀의 연인들의 위한 특별한 방일까? 커다란 유리병 속에 담긴 수십 송이의 붉은 장미들에게서 나는 요염한 향

내가 방안에 가득했다.

잠시 후 웨이터가 양주 한 병과 안주를 갖고 들어왔다.

“주…주문 안했는데요.”

“조 부장님께서 미리 주문해놓으신 겁니다.”

웨이터가 따라준 양주를 한 잔 마시며 조미영을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일 년 열두 달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내고 있음에도 빈 방에 혼자 소파에 쪼그리고 있으려니 답답하고 지겨웠다. 창문이 없어 더 그럴지도 모른다. 나는 소파 위에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면서 몸살을 앓았다.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늙은 놈들이 도통 놔 주질 않잖아.”

한 시간 넘게 기다린 뒤에야 조미영이 룸 안으로 들어왔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해 있었다. 블라우스 한쪽 자락이 스커트에서 불결하게 삐져나와 있고. 누군지 모르는 늙은 놈들에게 분노가 치밀었다.

“뭔데? 나의 꿈지가 내게 부탁할 게 뭐가 있지?”

조미영이 혼자 깔깔대다 내 볼을 두 손으로 쥐었다.

“키스? 아니면 섹스? 그거야? 어쩔까? 아무래도 좀 밀지는 것 같은데.”

“가…간단히 얘기할게.”

조미영이 더 취하기 전에 얘기해야 할 것 같았다. 도둑이 든 얘기를 짧게 얘기해주고 CCTV 동영상의 캡처사진을 보여줬다.

“이 사람 시…신원 좀 알아봐줘. 빠…빨리.”

“알았어. 틈내서 알아볼게.”

조미영이 사진을 한번 훑어보곤 탁자 위에 올

려났다. 나는 조미영이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할까 걱정되었다.

“안되겠다. 내가 사진 스캔해서 메…메일로 보내줄게. 내일 아침에 꼬…꼭 열어봐.”

“알았어. 그렇게.”

조미영이 소파 등받이에 눕다시피 기대며 나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중년여인의 음란함에 몸이 절끔거렸다.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지?”

“그럼 뭘?”

“지금 노래해줘. 나만을 위해. 유 아 쏘 뷰티 풀.”

나만을 위해? 조미영이 질투를 느끼고 있던 애기가? 그런데 이 순간 가슴 속에 차오르는 이것은 뭘까? 마치 정복자라도 된 듯 호탕한 이 오만함은.

“아…알았어. 얼마든지.”

나는 노래방 기기에 번호를 입력하고 마이크 앞으로 가 섰다.

“아냐. 마이크 들고 이리 와. 바로 내 곁에서 내 눈을 보고 불러줘.”

마이크를 빼들고 조미영의 옆에 앉았다. 전주가 흘러나왔다. 나는 조미영의 눈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다. 그 애의 취한 눈동자 속에 꿈지깃을 한껏 세우고 구애의 노래를 부르는 수평한 마리가 담겼다. 당신은 내게 너무나 아름다워요……. 당신은 내게 너무나 아름다워요…….

“나쁜 놈.”

노래가 끝나자 조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주먹으로 내 가슴을 때렸다.

“이렇게 노렐 잘 하면서 왜 나한테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어? 이 사기꾼.”

조미영이 내 허리를 껴안았다. 나도 조미영

의 입술과 혀를 찾았다.

“그…근데 뭐 하나만 무…무…물어볼게.”

기나긴 키스가 끝난 후 나는 뺨을 그 애의 이마에 붙이며 말했다.

“뭘?”

“왜 하…하필이면 나니? 암만 새…생각해봐도 모르겠어. 네 주변에 괜찮은 남자들도 많을 텐데. 누가 봐도 너한테 난 어…어울리지 않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린 너무나 잘 어울리는 데.”

조미영이 여전히 나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은 남자들? 아냐. 아니야. 아무리 둘러봐도 괜찮은 남자는 너밖에 없어. 넌 내게 피톤치드와도 같은 존재야. 정말이야. 그리고 너만이 날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래서 널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널 유혹하는 거고. 너는 모르겠지. 여자들의 눈에 내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지를.”

믿기 어려운 말하기에 더욱 지독할 만큼 달았다. 입안에 침을 가득 고여 삼켰어도 여전히 목은 타올랐다.

“정말이지? 날 사랑한다는 거?”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설마 나를 사내 잡아먹는 괴물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좋아. 네가 믿던 믿지 않던 간에 분명한 건 너는 내거라고. 내가 워너니까. 어떤 경우에도 넌 내거라고. 다신 널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네 주인이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란 걸 잊지 마. 나의 꿈지.”

조미영이 내 귓속에서 뜨거운 입김과 함께 속삭였다. 나의 손을 이미 흐트러진 블라우스 속으로 끌어당기며.

피톤치드(phytoncide)

1937년 러시아 레닌그라드 대학의 생화학자인 토킨(Boris P. Tokin)이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희랍어로 ‘식물’이라는 뜻의 ‘phyton’과 ‘죽이다’라는 뜻의 ‘cide’가 합해서 생긴 말이다.

20세기 초까지 폐결핵을 치료하려면 숲속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며 요양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삼림욕을 하면 식물에서 나오는 각종 항균성 물질을 이르는 피톤치드가 몸속으로 들어가 나쁜 병원균과 해충, 곰팡이 등을 없애는 구실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이며 피톤치드의 구성 물질이 테르펜을 비롯한 페놀 화합물, 알칼로이드 성분, 글리코시드 등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삼림욕을 통해 피톤치드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장과 심폐기능이 강화되며 살균작용도 이루어진다. 이에 여러 상품들에 피톤치드의 효능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방향제에 피톤치드 성분을 추출해 넣거나 음식물에 식물의 꽃이나 잎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식물의 고유한 피톤치드 향기는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두산백과사전)

조미영이 나를 피톤치드와도 같은 존재라고 한 말은 무슨 의미일까? 물론 좋은 뜻으로 한 말일 게다.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존재, 기분을 좋게 해주는 존재 정도의.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마디로 기분 전환을 위해 간혹 필요한 보조제 정도로 여긴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연인으로든 정부로든. 피톤치드가 좋다고 해도

특별한 사람 아니면 숲속에 처박혀 살 생각은 하지 않을 테니까. 조미영이 이 말을 들으면 펄쩍 뛰는 척 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불쾌해할 이유는 없다. 어차피 나의 삶의 구조는 발생단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숙주를 필요로 하는 기생충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어머니, 조미영, 권 교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내가 빙하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나타난 사내 같다는 권 교감의 말이 이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삶을 함께 일궈갈 동반자로 무능력 그 자체인 원시인을 택할 여자는 없을 테니.

그런데 조미영과 권 교감, 그뿐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피톤치드이든 빙하기의 원시인이든 그들이 내게서 느끼는 맑고 신선한 이미지의 근원은 그렇듯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건 찌질할 수밖에 없는 한 존재의 절박한 생존수단이다. 식물이 치명적인 병원균과 해충, 곰팡이에 저항하려고 내뿜거나 분비하는 물질이 피톤치드인 것처럼.

나의 장애는 사회성이지 지능이 아니다. 오히려 나의 두뇌는 2년 만에 고입과 대입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명문인 ○○대학 영문과를 들어갈 만큼 뛰어난 편이다. 나는 나의 생존을 위해 얼마든지 교활해진다. 나의 생존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기꺼이 그들의 애완동물이 되기로 자처했고, 애완동물이 사랑받는 방법을 터득해갔다.

그런데 나와 이십 년을 훨씬 넘게 살아온 권 교감마저도 나의 순수함 이면에 감춰진 교활함을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질 못한다. 어쩌면 나의 어눌한 언행을 보고 백치가 틀림없을 것이라 생

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선입견이 권 교감의 무의식에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조미영의 말대로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나는 그 애를 사내 잡아먹는 괴물로 규정짓고 있는 것 같다. 몇 번이나 거듭해서 조미영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것은, 거꾸로 그 애가 나에게 사랑 없이 쾌락만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르니까. 그럼으로써 또다시 상처받거나 파멸되는 일이 없이 타자로서 순수하게 그 애의 유혹을 즐기기 위하여.

나야말로 괴물임이 틀림없다. 알 수 없는 내면을 가진, 교활한 인간으로서.

며칠 후 한밤중에 아주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목격한 사람이 나와 권 교감뿐이어서 그렇지 동네가 발각 뒤집힐 일이었다.

자정이 한참 지난 시각, 번역 일을 늦도록 하다가 잠자리에 막 들려고 할 때였다. 아래층에서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대낮에도 내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시각에 현관문을 두드릴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누가?”

소란에 잠이 깬 권 교감이 일어나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모…몰라. 내가 내려가 볼게.”

나는 바짝 긴장을 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부랴부랴 가운을 걸친 권 교감이 따라 내려왔다. 현관문으로 다가가 방범경을 통해 밖을 내다봤다. 흐릿하게 보이는 얼굴은 놀랍게도 제냐였다.

“누구야?”

권 교감이 내 등 뒤에서 숨을 죽이며 조그맣게 물었다.

“3호집 제냐.”

“그 여자가 이 시각에 웬일로?”

“일단 무…문부터 열어줘야겠어.”

현관문을 열자 제냐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며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런데 제냐는 겨우 손바닥만 한 팬티 하나만 걸친, 거의 벌거벗은 상태였다.

“뭘해? 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있어.”

권 교감이 자신의 커다란 몸으로 제냐의 몸을 가리며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현관문 옆에 붙어 있는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잠시 후 나오라는 소리에 나가보니 제냐는 권 교감의 커다란 목욕가운으로 몸을 감싼 채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우선 따뜻한 차부터 마시고 진정해요.”

권 교감이 차를 끓여 내왔다.

“이게 뭘 일이에요? 무슨 일인지 얘기 좀 해봐요.”

“최 원장이 나를 가죽허리띠로 때리려 했어요.”

“예? 최 원장이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예. 너무 무서워 죽을 것만 같았어요. 최 원장을 밀쳐내고 겨우 도망쳤어요.”

“세상에! 전에도 그랬어요?”

“술에 취해 때린 적은 있지만 가죽허리띠는 처음이에요.”

“왜요? 최 원장이 제냐 씨를 왜 때려요?”

“최 원장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선 내가 돈을 훔쳤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돈을 훔치다니요?”

“아녜요. 정말 돈 안 훔쳤어요. 최 원장이 우즈베키스탄 우리 집에 매달 천 달러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섯 달이나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 돈 보내주지 않으면 아빠 엄마 못 살아요. 그래서 최 원장이 주는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았어요. 겨우 이번에 천 달러 보내줬어요. 처음이에요. 최 원장이 그걸 알고 나한테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어디 맞은 데는 없어요?”

“없어요. 때리기 전에 도망쳤어요.”

권 교감이 어이가 없는지 일어나 거실 안을 서성였다. 나는 제냐에게 다가앉았다.

“제냐, 겨…경찰에 신고하지 그랬어요.”

“썬, 소용없어요. 최 원장 경찰에 높은 사람 친구 많아요. 나만 쫓겨날 거예요.”

권 교감이 다시 제냐 옆으로 와 앉았다.

“오늘은 여기서 자요. 내가 최 원장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때까진 절대로 최 원장한테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있어요. 알았죠?”

“아니에요.”

그런데 제냐가 고개를 저었다.

“조금 있으면 잠들 거예요. 나 밖에서 자면 당신 집에 못 들어갈지도 몰라요.”

제냐는 잠시 앉아 있다 최도철의 집으로 돌아갔다.

“최 원장 아주 더러운 놈이야.”

잠이 올 것 같지 않다며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온 권 교감이 새로운 사실을 얘기해줬다.

“어디서 들었는데, 최 원장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거야. 구청장이 안 되면 시의원이라도 말이야. 내 생각이지만, 최 원장한테 제냐가 거처적거렸을 거야. 새파랗게 어린

아가씨를 그것도 외국인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선거판에서 그냥 놔두겠어? 제냐를 버리겠다고 마음먹고 나니 돈 천 불도 아까웠던 게지. 어쩌면 제냐가 제 발로 나가게 부러 못되게 구는지도 모르고.”

권 교감의 짐작이 맞을 것이다. 얼마 전 제냐는 최고철이 잠자리에서 전에 안하던 이상한 짓을 한다고 했다. 같은 맥락일 것이다. 어차피 내 버릴 물건이니까.

“자기가 제냐 씨 좀 도와줘.”

한참 생각에 빠져 있던 권 교감이 나를 뵈며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뭐…뭘 어떻게……?”

“결국엔 최 원장이 제냐를 쫓아낼 거야. 빈손으로 쫓겨날 수는 없잖아? 그런데 나이 어린 외국인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 자기 펜싱부 동기 중에 변호사도 있잖아.”

글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역시 최고철과 같은 부류의 괴물일지도 모르는데…….

“특종이야. 완전 특종감이야.”

전화기 속 조미영의 목소리가 매우 흥분해 있었다.

“CCTV 캡처 사진의 노인이 누군지 알아냈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도 알아냈어. 당장 방송국 앞으로 와서 전화해. 너 오늘 나한테 단단히 한턱 내야할 거야. 내가 무지 애썼거든.”

바로 차를 몰고 여의도 방송국으로 달려갔다. 방송국 앞 유료주차장에서 전화를 하자 조미영이 바로 나왔다.

“나 오늘 완전 프리다. 애들한테 다 맡기고 땡

땡이쳤어. 야권 단일후보가 당장 발표가 된다 해도 난 모르는 일이야. 나의 꿈지, 오늘날은 조미영이 완전히 네 거다. 나를 살아먹던지 구워먹던지 맘대로 하라고.”

조미영이 내 차 조수석에 올라타며 호들갑을 떨었다.

“사진 애…얘기부터 해줘. 뭐하는 사람인데?”

“이름은 김달복. 만 65세. 전과 14범의 전문 금고털이.”

조미영이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과 전과 조희한 기록을 꺼내 내밀었다.

“그 바다에선 전설적인 인물이라. 지난해 가을까지 감호소에 갇혀 있었는데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어. 집행정지사유는 고령에다 간암.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내보내준 거겠지.”

나는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교도소 안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삭발한 채로 자신의 수감번호가 적힌 판자를 들고 있었다. 찍은 장소에 따라 사람이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는지 놀라웠다. 어디에도 점잖던 노신사의 풍모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지…진짜 도둑이었네. 그런데 왜 다른 물건들은 후…훔치지 않았을까?”

“이게 다가 아니야. 빅뉴스는 지금부터 내가 얘기해주는 거야.”

조미영이 내게 얼굴을 드밀며 생글거렸다.

“방금 너한테 알려준 내용은 내가 메일 보내준 날 오후에 바로 알아냈어. 그런데 이것만 갖고 네가 어떻게 할 거야? 경찰도 아닌데 김달복을 추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사를 더 해봤어. 내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누굴 시킨 거지만. 이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거야.”

나는 조미영이 해줄 얘기가 기대되어 침이 꿀

떡 삼켜졌다.

“놀라지 마. 아주 쇼킹한 얘기야. 김달복의 막내동생 이름이 김달수인데, 보통은 토니 김이라는 예명으로 불렸대. 직업은 색소폰 연주자였어. 그런데 이 토니 김이라는 친구가 속했던 밴드 이름이 부메랑이야. 이제부터가 중요한 애인데, 이 밴드는 십년 전에 자살한 에일리라는 재즈가수의 전속밴드였다는 거야. 알지? 에일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예전 안주인인 거.”

비밀의 세계는 내 상상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곳에 있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뭔가 엄청난 비극의 막이 곧 눈앞에서 활짝 열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그런데 지금 토…토니 김은 뭐해?”

“그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야. 토니 김은 십년 전 에일리가 자살하기 세 달 전에 실종되었어.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결국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았고.”

“그…그…그럼 토…토니 김의 실종이 에일리의 자살과 과…관련 있다는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십년 전이야 이 두 사건이 결코 연결될 수 없었지만, 이제 토니 김의 친형인 김달복이 네 집에 잠입했다는 사실로 두 사건이 연결되어버린 거야.”

“이젠 토…토니 김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네?”

“맞아. 근데 내가 더 이상은 알아볼 수가 없어.”

“왜? 트…특종감이라고 했잖아?”

“냄새는 나지만 사건이 없잖아? 사건이 없는데 취재할 수는 없거든. 그렇다고 십년 전 실종 사건을 뜬금없이 쫓 수도 없고. 더구나 이젠 사회부 일이야. 내 일도 바빠 죽겠는데 남 일까지

챙길 순 없잖아?”

맞는 얘기다. 조미영에게 더 이상 부탁하는 것은 무리다. 이제부터 내가 나서야한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추리작가 선생님, 이제 놀라운 능력을 제게 보여주세요.”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는 나의 어깨를 조미영이 끌어안으며 말했다.

“내가 준 사진 뒤에 전화번호랑 이름이 적혀 있을 거야. 십년 전에 토니 김 실종 신고를 한 여자야. 당시 부메랑에서 피아노를 치던 멤버니까 뭔가 아는 게 있을 거야. 네가 한번 만나봐. 그리고 그 결과를 나한테 얘기해줘. 내 예감에 조만간 사건이 터질 것 같아.”

나는 사진을 뒤집어보았다. 장애인이란 이름과 함께 핸드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네 일도 아니라면서…….”

“그냥 기자로서의 호기심이야. 난 아무래도 정치부보단 사회부 체질인 것 같아.”

“고마워. 지…지금부터 내가 알아볼게.”

“내가 해줄 건 다 해줬다. 이젠 네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지. 안 그래? 나의 꿈지.”

조미영이 장난기가 가득 담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조미영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 순간 나는 그 애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감격했다. 숨 쉴 틈도 없을 대선정국임에도 조미영은 나를 위해 온갖 애를 쓴 것이다.

“뭘 해줄까? 뭐든지 말해봐.”

나는 조미영의 허리를 두 팔로 안으며 속삭였다. 그러자 조미영이 두 손을 모아 내 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나 좀 묶어서 어디론가 납치해줘.”

“나…납치? 어디로?”

“그거야 납치범 마음대로지.”

조미영의 눈빛은 벌써 벌거벗고 있었다. 나는 마음 속 저항을 포기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 것이다.

“그래, 속초. 날 속초로 납치해줘. 동해 바닷가에 앉아서 나의 콩지랑 소주 마시고 싶다.”

나는 조미영과 섹스를 했다. 그 애가 어떤 심정으로 나와 섹스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에게서는 어떤 의미로든 분명 놀랍고도 엄청난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조금도 특별하거나 새삼스럽지 않았다. 지난 이십오 년간 조미영과 한 침대를 쓰고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든 게 오히려 놀라웠다. 어쩌면 사십 넘은 남녀에게 누구와의 섹스도 낯설거나 새삼스러울 수 없는 건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대포항 부두 노점에 앉아 회를 안주로 소주를 마셨다. 여기까지 와서 취해 그냥 자면 죽는 줄 알아. 요염한 눈짓을 보내며 술잔을 뺏는 그 애의 얼굴은 분명 아내 또는 오래된 연인의 낯익은 것이었다. 그 다음 우린 팔짱을 끼고 방파제 위를 어슬렁거리며 산책하다 호텔로 들어섰다. 호텔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며 뭔가 낯설음을 주고받는 그림 또한 오랜만에 여행길 떠난 중년 부부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처음 알몸으로 마주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몸을 낯설어하지 않았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서로의 길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이건 호크가 앞쪽이야.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등 뒤로 손을 가져가자 조미영이 나를 꼬집으며 말했다. 몰랐네? 언제 바꿨어? 그때 이렇게 자연스런 대꾸라도 했어야 어울렸을 것이다.

그 애 몸은 다음 내 손길이 어디로 갈지 알고 있다는 듯 조바심내지 않고 기다렸다. 나는 익숙한 길인 양 마냥 내달렸고, 그 애의 몸은 점점 더 깊은 곳에서 신음을 흘려냈다. 먼 풍경 속 기차소리와도 같은, 소리 없이 아득하게 귓속으로 젖어드는.

다음날 새벽, 안개가 낀 영동고속도로를 내달릴 때까지도 조미영과의 섹스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의 쾌락으로만 여겨졌다. 시트를 뒤로 젖히고 깊이 잠든 그 애의 얼굴을 바라보며 엉뚱한 상상까지 했다. 서둘러 집에 도착해 아침밥 먹여 출근시켜야 할 텐데.

그러나 동서울 톨게이트가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나의 상상 속 일상은 폭발과 동시에 현실 속 절망의 잔해로 길바닥에 내던져졌다.

- 물체는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적혀 있는 문구다. 이 세상의 모든 건 생각보다도 가까이 있는 법이다. 좋은 것이든 아주 몹쓸 것이든.

아마도 나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버릴 파국이 저 톨게이트 너머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괴물조차 감히 상상하기 두려운 험한 얼굴로.

도둑과 여배우

감기몸살을 지독하게 앓았다. 동네 의원에 가서 주사까지 맞았지만 차도가 없었다. 편도선이 부어오르며 열이 삼십구 도까지 올라갔다. 심지어 한동안 정신을 잃기도 했다. 별컹 겁이 난 권 교감이 학교를 며칠 쉬겠다고 했다.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다. 나는 펄쩍 뛰었다.

피병이란 걸 알기 때문이다.

권 교감이 학교에 가 있는 낮 시간엔 열이 내리다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면 급속하게 올랐다. 편도선을 부어오르게 하고 고열을 불러온 것은 분명 감기바이러스가 아닐 것이다. 존재의 위기를 느낀 나의 무의식이 불러온 일종의 회피행동일 것이다. 조미영과 잤다는 죄의식이 스스로에게 집행한 형벌, 삼십구 도 고열의 가혹한 육체적 고통으로 제발 파국의 심판만은 면하길 바라는 무의식의 간계…….

나는 병으로부터 빠져나왔다. 열흘간이나 감기몸살을 붙잡고 있기에 나의 무의식도 버거웠던 것 같다. 그 사이 평창동 핑키타운엔 가을이 찾아와 있었다. 그리고 남재욱에 관한 쇼킹한 뉴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재욱이 야당 대통령후보 캠프의 SNS팀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자 그를 비방하는 글들이 줄지어 인터넷상에 올라왔다. 사소한 걸로는 강의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것에서부터 진보주의자라 표방하면서 실제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며 자식 다섯을 모두 미국에 유학 보냈다는 얘기도 있었다. 게다가 어느 술자리에서 여제자의 허벅지를 더듬었다는 성추문까지. 물론 그를 옹호하는 추종세력의 반론도 만만치는 않았지만.

아무튼 별일 없이 넘어가는 듯 했는데, 며칠 전에 결정적인 글 하나가 올라왔다. 남재욱의 박사학위 논문이 남이 써준 것이라는 충격적인 폭로였다.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다.

강남의 입시학원 강사였던 남재욱이 어느 날 대학교수로 둔갑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연출한 마술사는 클래식 음악계의 막강한 권력자 한유

경 교수다.

이혼녀였던 한유경은 2004년 당시 딸이 다니던 입시학원 강사인 남재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 결국 한유경은 유부남이었던 남재욱을 이혼시키고 2005년 그와 재혼했다. 그 직후 한유경은 남재욱을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에 집어넣었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자마자 현재 남재욱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전임강사로 취업시켰다. 그 후 남재욱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현재 ○○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다. 물론 이 화려한 성공신화의 창조자는 한유경이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한유경 교수의 추잡한 인생을 새삼 폭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후보의 핵심 참모로 거론되는 남재욱이 가짜 박사라는 사실만은 밝히지 않을 수가 없다. 혹시라도 그런 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결정짓는 자리에 앉게 된다면, 그야말로 참담한 비극일 테니.

남재욱은 박사과정에 등록하고도 거의 학교에 나간 적이 없다. 남재욱의 박사과정 기간 동안 한유경의 부동산이 집중적으로 취득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남재욱은 한유경의 지시로 부동산 투기에 전념하고 있었다. 당연히 남재욱은 학위논문을 쓸 시간도 능력도 없었다.

한유경은 자신이 재직하는 대학 신문방송과의 한 시간강사에게 남재욱의 학위논문을 대신 써주도록 강요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협박이 있었는지, 아니면 금전적 대가 등 어떤 회유가 있었는지는 두 사람만이 알 것이다.

남이 써준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한 남재욱 교수는 당장 ○○당 대통령후보 캠프에서 축출되

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음악계와 교육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한유경을 저 무대 위에서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글의 맥락을 볼 때 타깃은 남재욱이 아니라 한유경인 것 같았다. 하지만 남재욱에게 흘려온 유탄은 치명적이었다. 폭로 사실이 워낙 충격적이고 구체적이라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다뤘다.

한유경과 남재욱은 악의적인 모함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제의 시간강사는 폭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만 남기고 잠적해버렸다. 그럼에도 어제 오후 야당 대통령후보 캠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남재욱의 SNS팀장 내정 사실 자체를 부인해버렸다.

몸이 좀 추슬러진 뒤 조미영이 알려준 피아니스트를 찾아 나섰다.

피아니스트의 이름은 장애란. 부천역 앞에서 조그마한 피아노 바를 운영하고 있었다. 바에 들어섰을 때 장애란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잘 알려진 재즈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피아노 음들이 생성과 동시에 홀 안에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에 흡수되어 버렸다. 연주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라디오의 BGM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저한테 전화하셨던 분이랑요?”

연주를 마친 장애란이 내 옆에 와 앉았다. 표정 없는 얼굴이다. 아마도 험했을 세월과 함께 두텁게 바른 화장을 긁어내면, 그 안엔 텅 빈 공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애란은 내 물음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남의 얘기를 하듯 덤덤하게 얘기를 들려줬다.

“토니 김?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 맞아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한때 내 남자였으니까. 어울리지도 않는 건달 흥내를 내긴 했어도 착한 남자였어요.”

“죽은 사람에게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에일리 그년 정말 짱년이에요. 남의 남자 빼앗아가서 실컷 데리고 놀다가 차버린 년이라고. 틀림없이 죄받은 거야. 아니면 결혼해서 애까지 가진 년이 왜 자살했겠어?”

“오래 돼서 이젠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 쪼다 같은 놈이 에일리를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그년이 기도현한테 시집가 버리니까 한동안 토니 김이 죽겠다고 지랄발광을 해댔지요. 그러다 바로 잠잠해졌어. 내가 본 거는 아니지만 다시 그년을 만나는 거 같았어요. 틀림없어. 그런 눈치였다니까. 그러다 아주 사라져버린 거지.”

“근데 십 년이나 지났는데 왜 지금 와서 토니 김을 찾는 거예요? 아니, 아니.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젠 나하곤 상관없는 일이니까. 돈 있죠? 큰 걸로 양주 한 병만 시켜요. 얘기 들은 값으로. 토니 김……. 그땐 내 인생도 죽여줬는데. 아, 지랄, 오늘 또 괜히 미치겠네.”

충격적인 얘기였다. 토니 김이 에일리의 정부였고 결혼 후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했을 거라는 얘기다. 그러다 토니 김이 실종되었고, 3개월 후 에일리가 자살을 했다. 도대체 이 비밀의 끝엔 어떤 괴물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아무튼 참혹한 비극으로 맺을 것만 같은 이 이야기의 엔딩은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게 분명하다.

술이 취한 장애란이 옛날 부메랑 시절 얘기를 줄줄이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슬그머니 피아노 바를 빠져나왔다. 밤공기가 제법 싸늘했다. 보도블록 위로 초라한 빛을 흘리고 있는 피아노

바의 네온간판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뿜었다.

놀라운 사실이긴 하지만 만나본 적도 없는 에일리의 과거 행적에 대해선 솔직히 관심이 없다. 하지만 지난 십년 간 도현 형이 겪어왔던 고통은 내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생지옥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새삼 가슴이 메어졌다. 어딘가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도현 형의 통곡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택시를 잡기 위해 부천역 광장 쪽으로 걸어갔다. 취하지도 않았는데 몸이 비틀거렸다. 승용차 한 대가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며 내 앞을 스쳐지나갔다.

“개새끼! 똤지고 싶어 환장했어?”

욕설과 함께 헤드라이트 불빛이 내 얼굴을 후려치는 순간 섬광처럼 뇌 속으로 찢러오는 게 있었다.

혹시 도현 형은 살아선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나를 통해 세상에 밝히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게 뭘까? 차마 무덤 속으로 까진 갖고 갈 수 없었던 통한의 비밀은.

김달복을 어떻게 찾을까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장애란을 만난 뒤 삼일 후 그가 스스로 나를 찾아온 것이다.

오후 세 시 반쯤이었다. 이층 서재에서 번역 일을 하다가 차를 한 잔 마시려 아래로 내려갔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 보타이를 단정하게 맨 노신사가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다.

“누…누…누구요?”

한눈에 김달복임을 알아봤지만 입 밖으론 그렇게 튀어나왔다.

“전에 한 번 뵈 적이 있지요? 김달복이라고 합니다.”

초대받아 온 손님인 양 아주 태연한 표정의 김달복은 소파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미안합니다.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인사를 하고난 김달복이 내게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런데 그 온화한 미소가 나를 더욱 긴장케 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는 몰라도 전과 14범인 김달복이 내게 어떤 짓을 할지 두려웠다.

본능적으로 펜싱 칼이 있는 연습실로 눈이 갔다. 펜싱 칼은 끝이 뭉툭하고 잘 휘어져 사람을 해치기 어렵다. 그래도 칼은 칼이다. 상대방에게 겁을 줘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는 쓸 만하다. 그런데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바로 읽혔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읽히는 순간 검객의 승부는 끝난다.

김달복이 탁자 위에 놓인 볼펜을 집어 들고는 미소를 지었다.

“쓸 데 없는 생각 마십시오. 사람을 찌르는 것은 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선생님은 저 칼을 손에 쥐어도 개미새끼 한 마리 못 죽일 분입니다.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전 다릅니다. 평생 흥한 꼴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구든 이 볼펜 하나만으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가 볼펜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런, 죄송합니다. 말이 험해졌습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가만히 제 얘기만 들어주신다면 해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흉악무도한 놈이라 해도 이유 없이 사람을 다치게야 하겠습니까? 이리

와 앉으십시오.”

그 순간 나는 그의 포로가 되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맞은편 소파에 다소곳이 앉았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매우 부드러웠다. 웬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눈빛이다.

나는 침을 삼킨 뒤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저한테 무…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그리고 저…전에 저…저희 집 지하실엔 왜 드…들어오셨던 겁니까?”

김달복이 다시 미소를 지었다.

“애란이 그 애한테 얘길 들으셨으니 선생님께 서도 짐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장애란을 찾아간 걸 김달복은 알고 있었다. 장애란과 내통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죽기 전에 제 막내아우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나직하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 어떤 울림이 느껴졌다. 모든 걸 내려놓은 자만의 진정성이 담긴 듯한.

“도…동생분이 도현 형 허…형수와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생분의 실종이 도현 형과 과…관련 있다고 단정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즈…증거라도 있습니까?”

김달복의 따뜻한 눈빛만을 믿고 나는 용기를 내어 따졌다.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도 선생님이 애란이한테서 들었던 내용이 전부입니다. 제 아우의 실종이 에일리라는 가수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현의 유품 중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아보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선생님 댁 지하실에 들어갔을 때는 큰 기

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기도현이 제가 무엇을 찾아야 하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물론 저한테가 아니라 선생님께 쓴 편지를 통해서였지만.”

도현 형이 유미연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노란 서류봉투 속의 물건이 토니 김 실종사건의 전모를 밝혀주는 결정적인 단서라는 게 확인되었다. 나는 봉투 속의 물건이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졌다.

“보…봉투 속에 들어있는 건 무…무언가요?”

김달복이 잠시 눈을 감았다 고개를 흔들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봉투 속의 그 물건이 무엇인지 영원히 세상에 밝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저에게도 부끄럽고 고통스런 일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있던 김달복이 몸을 세우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늘 선생님을 찾아뵈는 것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저…저한테 부…부탁이요? 무슨…….”

갑자기 김달복의 눈빛이 매섭게 바뀌었다.

“며칠 전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 누군가가 침입했습니다. 아마도 저 윗집 할머니가 사람을 시켜 제 숙소를 알아내고 봉투 속 물건을 찾았던 모양입니다. 물론 물건은 제가 다른 곳에 보관해 두었으니 찾을 리가 없었지요. 대신 윗집 할머니의 편지 한 장이 남겨져 있더군요. 돈을 줄 테니 물건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를 원하는지 알려달라고요.”

김달복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내게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수고스럽지만 윗집 할머니에게 제

말을 전해주시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진실뿐이라고요. 앞으로 정확히 삼주일 시간을 줄 테니 그 안에 모든 진실을 밝히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을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말을 마친 김달복이 나를 등지고 현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다 걸음을 멈추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말도 전해주시시오.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라 두려운 것 하나 없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유미연은 꿈적도 하지 않았다. 1호 저택으로 찾아간 나를 김달복이라도 되는 양 노력하며 말했다. 나지막한 목소리가 너무도 음산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것만 같았다.

“진실? 무슨 진실? 무슨 소린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십 년 전에 딸애와 함께 묻혔어야 할 구차한 목숨입니다. 이 늙은이야말로 두려울 것도 못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놈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도둑과 여배우가 거친 황야에 마주섰다. 누가 승자가 되던 간에 혈투로 흘린 핏물이 황야를 적시고 나서야 진실은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어디선가 피에 굶주린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지속적 간섭에 의해서든 어떤 쇼크로 인한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든. 본인이야 그 이유를 알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누군가가 변한 건 틀림없는데 주위 사람들이 도무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없을 때 당연히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변화의 정도나 양상에 따라 엄청난 불안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유도 모르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주위 사람들로서는 억울한 노릇이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 변화의 원인이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내색도 하기 어렵다. 더구나 함께 사는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 스트레스의 강도는 말할 것도 없다.

권 교감이 변했다. 섹스를 끊었다. ‘즐거지 않았다’가 아니라 ‘끊었다’이다. 무 자르듯 단칼에 끊어버렸다. 지난 8월 말 봉화에 다녀온 뒤로 나는 권 교감과 섹스를 한 적이 없다. 이미 세달째다.

처음엔 학기 초라 힘들어서 그런가보다 했다. 사실 그땐 하루걸러 술에 취해 들어왔다. 유독 이번 학기 초에 이런저런 일도 많고 회식도 잦다고 하기에 그런 줄로만 알았다. 집으로 곧장 퇴근해 온 날도 거실 소파에 육중한 몸을 파묻고 텔레비전만 쳐다보았다. 그리고 9시뉴스가 끝나면 바로 올라가 잠자리에 들었다.

학기 초가 지나갔는데도 여전했다. 하루는 전례 없이 내가 먼저 부저를 눌렀다. 원래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부저는 권 교감 소유다. 샤워 후 목욕가운 자락을 휘적거리며 스트립쇼 흥내를 내던가, 내 발치에서부터 침대 시트 속으로 기어들어오는 식으로. 그런데 권 교감이 내 손을 밀쳐내고 돌아누웠다.

“미안해. 너무 피곤해.”

나는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조미영과의 일을 권 교감이 절대 눈치 챌 리가 없지만, 그래도 도둑이 제 발 저린 법이니까. 한편으론 무시

당한다는 느낌도 들었다. 당연히 나의 성적 욕구도 존중되어야 한다. 굳이 부부간의 도리나 의무까지 들추지 않아도.

결국 나는 정색을 하고 따져 물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민망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권 교감의 답변이 너무나 무성의했다.

“갱년기인가 봐. 그때 되면 여자들은 다 그래.”

남의 일처럼 심드렁하게 말하는 자세도 맘에 들지 않았지만, 답변 내용도 신뢰가 되지 않았다. 갱년기가 원인이라면 ‘즐기지 않았다’일 수는 있어도 결코 ‘끊었다’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9시뉴스가 끝날 무렵 혹시나 하고 권 교감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얼마 전부터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이젠 9시뉴스가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 버린다.

요즘은 온종일 번역 일에만 매달린다. 얼마 전에 맡은 처세술 책 번역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다. 새로 쓸 추리소설의 아이템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지하실에 도둑이 든 사건에서 영감을 얻었다.

김달복의 말을 유미연에게 전하는 걸로 나는 이 사건에서 빠지기로 마음먹었다. 애초부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김달복과 유미연의 혈투가 결말이 나기 전에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 사건을 소재로 하여 추리소설을 쓰기로 한 것이다. 주요 등장인물의 캐릭터도 실제와 비슷하게 할 생각이다. 김달복과 유미연 그리고 도현 형. 물론 이름과 직업은 바꿀 테지만.

어느 날 도둑이 으리으리한 저택에 숨어든

다. 이걸 우연이다. 도둑은 저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저택에는 십년 전에 죽은 집주인의 치밀한 계산이 숨겨져 있다. 도둑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계산에 말려든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수식에선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 상수가 된다. 도둑의 탐욕을 동력으로 숨겨진 계산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조금씩 드러나는 저택의 비밀, 죽은 집주인의 완벽한 복수……. 우연이 곧 필연이 된다.

아직은 막연하다. 이야기의 뼈대도 세우지 못했다. 온통 머릿속이 소설에 대한 구상으로 꽂차있다. 번역 일을 하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를 해 서재 벽에다 붙여놓는다. 한쪽 벽이 이미 다지닥지 붙여놓은 메모지로 가득 차다.

김달복과 유미연의 혈투 이후 드러나게 될 진실이 내 소설 속의 진실과 얼마나 흡사할지, 아니면 얼마나 다를지 궁금해서 미칠 정도이다. 끝없이 침이 마른다. 잠을 자려 누웠다가도 벌써 일어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때론 권 교감 문제도 뇌리에서 잊힐 만큼.

한창 번역에 몰두하고 있는데 기태가 찾아왔다. 제냐가 속옷 바람으로 내 집에 뛰어든 사건 얼마 후 나는 기태에게 제냐가 빈손으로 쫓겨나지 않을 방도를 찾아보라고 부탁했었다. 펜싱부 후배 중에 변호사도 몇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일에는 기자 출신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고들은 것도 많겠지만 잔머리 굴리는 폼수에는 기사를 당할 사람 없을 테니까.

“웬 비가 이렇게 쏟아지냐? 겨울이 다되어가

는데 눈이라면 모를까.”

현관문에 들어서며 기태가 투덜댔다. 우산을 쓰고 왔는데도 옷이 흠뻑 젖었다. 비가 오는 것은 알았지만 서재에 틀어박혀 있느라 빗줄기가 이처럼 거세졌는지 몰랐다.

“근데 저 앞집이 그 친구 집이냐?”

기태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며 물었다.

“그 치…친구라니?”

“왜 지난번에 박사학위논문 남이 써준 거라는데 들통 난 친구 말이야.”

“남재욱? 마…맞아. 그 사람 집이야.”

야당 대통령후보 캠프의 SNS팀장 자리가 취소된 남재욱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곧 쫓겨날 판이다. 며칠 전 기사에 학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남재욱 교수가 면직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나왔다.

“그 자식 쪽팔리는 건 아는가 보지? 동네 뜰 생각 한 거 보니.”

기태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피식, 웃었다.

“뭘…뭘 소리야? 도…동네 뜨다니?”

“이 빗속에 지금 이삿짐 싣고 있잖아. 몰랐어?”

“그래?”

나는 남재욱의 집이 보이는 창 쪽으로 뛰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기태 말대로 일꾼 둘이 비를 맞으며 이삿짐을 봉고 트럭에 싣고 있었다. 그런데 큰 저택의 이삿짐치고는 너무 작았다. 대형 트럭 한두 대 갖고도 모자를 텐데. 고개가 가웃거리긴 했지만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좀 알아봤냐?”

기태가 앉아 있는 소파로 되돌아가 바로 제냐 일에 대해 물었다.

“응.”

“그…그럼 지금 제냐 부를까?”

“그래. 그 여자에 오면 얘기하자. 귀찮게 재방송할 필요 없이.”

제냐에게 집으로 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로 오겠다고 답신이 왔다.

“그런데 그 애 조미영 말이야…….”

이 새끼 진짜로 완전 뺨잡았네, 하며 휘둥그레진 눈으로 거실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기태가 뜬금없이 조미영 얘기를 꺼냈다.

“미…미영이가 뭐?”

“방송국 후배 놈을 만났는데 개가 그러더라. 대선 끝나면 조미영이 방송국 그만둘지 모른다고.”

“왜?”

“새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네놈이 알면 모를까.”

“모…몰라, 인마. 나…나랑 무슨 사…상관있다고.”

아무 관심도 없는 척했지만 속으론 조금 놀랐다. 조미영에게선 전혀 그런 내색이 없었다. 요 근래에는 문자메시지도 없을 만큼 그 애가 바쁘긴 했지만. 설마 그 애 말대로 다 때려치우고 나랑 하와이 가겠다고 작정한 건 아닐까? 싱겁기 짝이 없는 상상에 나는 기태 몰래 웃음을 흘렸다.

“사실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만 입증되어도 어느 정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기태의 말을 제냐가 알아듣질 못했다.

“버…법적으로 드…등록하지 않았어도 제냐가 최 원장과 같이 사는 부부라고 인정이 되면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요?”

“그거야 주변 사람이 증언해주면 되죠. 여기 승준이 부부나 한의원 직원들이나. 그리고 제냐 씨 출입국 기록도 도움이 될 테고.”

기태가 이런저런 설명을 길게 늘어놓았다. 그런데 제냐가 중간에 끊고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 원장 재산 규모를 모르니까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제냐가 나를 흘끔 쳐다보며 입술을 내밀고 눈썹을 찌푸려 보였다. 몹시 실망한 표정이다. 그런데 기태가 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최 원장 그 친구 껍데기를 아예 벗겨버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좀 번거롭고 추잡스럽긴 하지만.”

바로 제냐의 눈이 커졌다.

“그게 뭐예요?”

“최 원장이 제냐 씨를 자주 때린다면서요? 못된 짓도 하고. 그걸 찍어서 고소하는 거죠. 몇 주 진단서라도 뺄 수 있으면 더 좋고.”

“야, 새...새끼야!”

나는 기태에게 소릴 질렀다.

“지...지금 뭐...뭐하자는 거야? 자...자...자해 공갈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지. 꼭 그러자는 게 아니고. 자식아, 그게 왜 자해공갈이냐? 사실이 그런데.”

“인마, 아...암만 그래도 그렇지. 제냐, 무슨 말인지 아...알아들었어요?”

제냐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안돼요. 보...보통 일이 아녜요. 거...거...거꾸로 당할 수도 있고요.”

“썬.”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던 제냐가 나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제냐의 눈빛이 아니다. 아마도 아마존 여전사의 눈빛이 이랬을 것이다.

“나 할게요. 최 원장 혼내주고 싶어요. 꼭 할래요.”

“제냐.”

다시 말려봤지만 오히려 제냐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기태가 제냐의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다. 며칠 내로 기술자를 부르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말리지 않기로 했다. 솔직히 뭐가 옳은 건지 몰랐다. 중요한 건 제냐의 의지다.

“인마, 너 노트북은 평소에 잠가 두냐? 패스워드도 자주 바꾸고?”

몰래카메라와 해킹 얘기를 하던 끝에 기태가 불쑥 물었다.

“그...그건 왜? 집안엔 나밖에 없는데.”

“새끼, 어째 너 혼자냐? 윤덕이도 있잖아?”

나도 모르게 웃음이 픽, 하고 새어나왔다. 권 교감이 내 핸드폰과 노트북을 몰래 열어본다고? 상상도 못할 일이다. 세상사람 다 그런다 해도 권 교감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 권 교감이 열어봤다면? 끔찍한 일이다. 조미영과 나 사이에 오갔던 음란한 문구들이 한순간에 머릿속에 지나갔다.

권 교감이 마음만 먹으면 열어볼 수 있었을 것이다. 포털사이트와 페이스북 모두 패스워드는 ‘rnjsdbsejr’이다. 한글 ‘권윤덕’을 영문 자판에 찍은 것. 하지만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 그

야말로 기우다. 그러면서도 나는 패스워드를 오늘 당장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럼 난 간다. 내일이나 모레 전화한 뒤에 기술자 데리고 올게. 제냐 씨 그때 봐요.”

기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냐도 기태를 따라 일어섰다.

그때였다. 창밖에서 요란한 빗소리에 섞여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 같기도 했다. 우리 셋은 바로 창문으로 달려갔다.

“썬, 저거 봐요. 4호 남자예요.”

제냐가 놀라서 소릴 질렀다.

“한 교수, 제발 문 좀 열어줘. 좀 지나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조용해질 거야. 어서 문 열어. 내가 전부 다 해결할게.”

굳게 잠긴 현관 문고리를 붙잡고 남재욱이 애원하고 있었다.

“저 놈이야? 남 교수라는 친구가?”

기태가 혀를 차며 물었다.

“응. 하...한유경한테 쫓...쫓겨났나봐.”

“이건 무슨 경우래? 다 한 교수란 여자가 한 짓이라며?”

“그러게? 여...영문을 모르겠네.”

현관문은 여전히 굳게 잠긴 채 아무도 내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남재욱의 목소리가 점차 거칠어졌다.

“날 쳐낸다고 당신은 온전할 것 같아? 기왕 터진 일인데 우리 합심해서 수습해야 할 것 아냐? 우선 문부터 열어봐. 정말 이대로 날 내칠 거야? 당신이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결국 쌍욕이 터져 나왔다. 남재욱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다.

“야, 이년아, 내가 어떤 놈인데 이대로 쫓겨날 것 같아? 너도 발기발기 벗겨서 길바닥으로 끌어내고 말거야. 내가 못할 줄 알아? 이 개 같은 년아, 현관문 부숴버리기 전에 문 안 열어!”

남재욱은 몹시 억울해하고 분개했다. 어쨌든 불쌍해보였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무심결에 저기 쏟아지는 빗속에서 문고리를 붙들고 절규하는 사내에 나를 대비해 보았다. 그런데 놀라웠다. 상상에 불과할 뿐이지만 그다지 두렵지가 않았다.

“할 수 없지 뭐.”

나는 무심결에 중얼거렸다. 기가 막혔다. 할 수 없지 뭐, 라니.

“오블라디 오블라다.....”

입안에서 비틀즈의 노래가 오물오물 씹혔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한 부족의 말로, 인생은 흘러가는 거라는 뜻이라 했다.

오블라디 오블라다 삶은 계속되지요

라라라 인생은 흘러가요

오블라디 오블라다 삶은 계속되지요

라라라 인생은 흘러가요

조미영과 두 번째 섹스를 했다. 상습적 행위가 된 셈이다. 이를 내연의 관계라 하나? 이젠 일시적 충동에 의한 실수라는 변명으로 관대함을 구걸할 수 없게 되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지도 모른다.

점심을 어떻게 때울까 고민하다 라면을 끓이고 있을 때였다. 느닷없이 조미영이 내 집에 들이닥쳤다.

“이번엔 내가 너를 납치하는 거야.”

바람도 쉴 겸 교외로 밥이나 먹으러 가자며 자기 차에 태웠다. 살짝 열어놓은 차창으로 빨려 들어온 바람이 조미영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늦가을의 맑은 하늘 때문일까? 짙은 선글라스를 쓴 그 애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일에 지쳐 금방이라도 시들어버릴 것 같았던 낮빛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조…좋은 일 있는가 보네?”

“왜?”

“표…표정이 아주 밝아서.”

“그래? 물론 좋은 일 있지.”

“뵈네?”

“지금 나의 꿈지랑 함께 있잖아.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조미영이 흘끔 나를 바라보곤 웃음을 지었다. 이가 시릴 만큼 싱그러운 웃음이었다. 나는 반짝이는 그 애의 입술에 키스하고 싶은 충동을 참기 힘들어 몸을 떨었다. 이보다 황홀한 시간이 어디 있을까? 운전을 하고 있는 그 애의 옆얼굴을 훑어지게 쳐다보며 끊임없이 침을 삼켰다.

간혹 가는 곳인 듯 조미영은 장흥유원지 내 한 오리구이 집에 바로 차를 갖다 대었다. 날씨도 제법 쌀쌀한 평일 낮인데도 식당 구석마다 웬지 은밀해 보이는 남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난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될만한 자리를 찾느라 두리번거렸다. 아니, 나의 시선이 가로막힐 만한 곳을 찾았다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결눈으로라도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찔했다.

“이 좋은 자리를 놔두고 왜들 구석에 처박히는지 몰라.”

그런데 조미영이 식당 한가운데에 있는 장작

불 화로 옆 자리로 다가가 앉으며 내게 손짓을 했다.

“그렇다고 얼굴이 가려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조미영은 오리로스구이와 소주를 시켰다. 운전은 어떻게, 라는 내 말에 대답 대신 한쪽 눈을 깜빡였다.

우리는 오리고기에 소주를 마시며 지하스튜디오 절도사건에 대해 얘기를 했다. 장애란을 만난 일과 김달복이 내 집을 찾아온 것, 그리고 유미연의 반응까지 전화로 이미 다 해준 얘긴데도 조미영은 꼬치꼬치 다시 캐물었다.

“유미연 그 여배우 말이야. 정말 대단해. 그치?”

“난 그 하…할머니 보…보기만 해도 무서워.”

“보통 사람은 아닌 게 틀림없어. 오래 전에 워싱턴 특파원 했던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 유미연이 미국에 건너가서 처음엔 뉴욕에 살았었다. 뉴욕에서 산 지 오년쯤 지났을 때 생긴 일인데, 유미연이 미주 동부한인사회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한 사업가와 사업상 분쟁이 생긴 거야. 수백만 불이 걸린 큰 송사였대. 쇼킹한 사건이었겠지. 워낙 유명했던 스타였으니까. 그래서 만사 제치고 취재에 나섰다는 거야. 그런데 취재를 하다 보니 유미연과 그 사업가가 내연의 관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어떻게 됐어?”

“의혹뿐이지 내연의 관계라고 밝혀진 것은 없었대. 결국 그 사업가가 법정 분쟁에서 중도에 손을 들고 말았어. 그 사람도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왜 손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대. 그냥 유미연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모종의 액션이 있었으리라 짐

작만 했을 뿐. 그런데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 쇼킹한 사건이 국내에서는 단 한 줄도 기사화되지 않았다는 점이야. 방송이든 신문이든.”

“어떻게?”

“필사적으로 로비를 했겠지. 근데 사실 그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 설사 한국에서 누군가 뒤를 봐주는 유력자가 있다고 해도 어디 한두 군데서는 새겨 마련이거든. 암튼 집요하고 무서운 여자인 건 틀림없어. 앞으로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나를 범인이라도 되는 양 노려보았던 유미연의 눈빛이 떠올라 새삼 오금이 저렸다. 재미있다는 수준을 넘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 또한.

“기태한테 들었는데…….”

웬지 이 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기분이 들어 나는 화제를 바꿨다.

“너 바…방송국 그만둘지 모르다며?”

“소문 빠르네. 근데 아직 결정된 것 아니야.”

낭설은 아니었다. 하와이 함께 가자는 말이 다시 떠오르며 머릿속이 근질거렸다.

“왜?”

“왜긴? 네가 그랬잖아? 애 좀 챙기라고. 하지만 그만두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니? 누구한테 푸념 한번 해본 건데 소문이 돈 거야.”

푸념 한번 해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 나는 황홀한 시간을 느끼고 즐기는 데만 집중하고 싶었다. 낯술임에도 그 애와 소주를 세 병이나 마셨다.

두 번째의 섹스는 첫 번째와는 전혀 달랐다.

결코 자연스럽거나 편안하지 않았다. 긴장의 연속이었다. 새로운 관계 정립이 주는 부담감 때문이었을까? 아니, 엄숙함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조미영이 무인텔의 밀폐된 주차장에서 스파이가 접선하듯 은밀하게 현금과 룬 키를 교환할 때 내가 손에 땀을 쥐고 느꼈던 것은 분명 엄숙함이었다.

이제 조미영과의 섹스는 충동적인 격정일 수만은 없다. 영혼의 이분화를 통해 펼쳐지는 새로운 스펙트럼에서의 일상이 되었다. 나의 또 다른 삶이 창조되었다.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침대 시트를 젖히고, 그 애의 벗은 몸을 눕히고, 그 애의 입술과 젖꼭지를 핥고, 그 애의 가느다란 허리를 움켜쥐고 몸부림을 치는 매순간마다 강도 높은 긴장감이 따라붙었다. 그리고 그 긴장도만큼 쾌락은 독했고 향은 진했다.

비로소 나의 잔인한 배반은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서울로 향한 자유로를 흠뻑 적신 노을은 잔혹하리만치 아름다웠다.

불륜의 상투성

그날 우리의 아침식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권 교감이 씻고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아침식탁을 차렸다. 평일 아침에는 대체로 샐러드와 함께 빵을 먹는다. 전날 권 교감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을 땐 콩나물국이나 북어국을 끓여 밥을 먹기도 하지만. 지중해 스타일 샐러드를 만들어 식탁에 올렸다. 지난 봄 인터넷을 통해 배웠는데 모제렐라 치즈와 야채 한두 종류만 있으면 간단히 준비할 수 있어 자주 올리는 편이

다.
나와 권 교감은 8인용 식탁에 마주앉아 식사를 했다. 권 교감이 토스트를 세 쪽이나 먹었다. 우리는 아침식탁에서의 일상적인 대화도 나눴다.

“이…일층 화장실 말이야. 아무래도 사람 불러야겠어. 기…깊숙한 데가 막힌 것 같아.”

“한번 뜯으면 공사가 커질 텐데? 내년 봄에 하자. 그때까지 손님방 욕실 쓰지 뭐.”

“알았어. 근데 오늘 늦어?”

“글쎄. 왜?”

“저녁때 다…닭볶음탕 할까 하고. 오랜만에 소주도 한 잔 하고.”

“그러자. 혹시 늦어지게 되면 미리 전화할게.”

식사를 마친 후 권 교감은 차고로 들어가고 나는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다. 잠시 후 권 교감이 차를 몰고 나왔다. 그런데 권 교감이 대문 앞에 차를 세우더니 내렸다.

“왜? 해…핸드폰 놓고 나왔어?”

권 교감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반히 쳐다보았다. 아주 낯선 타인의 얼굴로.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나는 파국을 직감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랑 얘기 좀 해.”

권 교감은 돌아서서 다시 집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대문을 닫고 따라 들어갔다.

불행하게도 예감은 적중했다.

“조미영이랑 잤어?”

충격은 매우 둔탁했다. 깊은 잠속에서 억지로 깨어난 듯 머릿속이 뻥했다. 시공간에 대한 현실감을 잃었다. 나는 괜히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뭐…뭐라고?”

“그 애랑 잤냐고?”

뇌 속의 모든 언어가 일시에 삭제된 것 같다. 뭐라 말을 하려 했는데 언어가 찾아지지 않았다. 꼭 두려움이라고만 하기엔 뭔가 복잡했다. 고단한 여행 끝에 드디어 종착역에 왔구나, 하는 안도감 같은 게 한쪽 구석에서 느껴지는 것도 같다. 그저 멍했다. 물에 흠뻑 젖은 솜뭉치처럼 무거웠다. 끝없이 가라앉았다.

“아무 말 못하는 걸 보니 잤구나? 알았어.”

권 교감이 나를 한 번 노려보곤 별떡 일어났다.

“나 출근한다. 저녁때 얘기해.”

하지만 권 교감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다. 뭐든지 얘기를 해야 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일지라도.

“여보, 그…그게…….”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마.”

권 교감의 눈빛이 나를 엄하게 꾸짖었다.

“저녁때 나한테 뭐라고 말할지 하루 종일 생각해봐. 중요한 얘기잖아?”

나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한마디라도 할 말이 없었다. 침묵을 강제한 권 교감이 고마웠다.

권 교감이 다시 차에 올라탔다. 운전대를 움켜쥐고 아무런 표정 없이 앞만 쳐다보았다. 대문을 다시 열었다. 권 교감이 차를 몰고 나갔다. 무심결에 나는 손을 흔들었다.

그새 햇살이 기다랗게 잔디밭 위로 늘어졌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파국의 순간은 조용한 아침햇살처럼 소리 없이 찾아왔다.

뭐든지 닦이기 전까지가 두려운 법이다. 막상

잠이 들었다 가위에 눌러 껴다.

무언가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목구멍에서 거품이 이는 듯 고통스러웠다. 가위에 눌린 거야, 빨리 깨나면 돼. 생각은 그랬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어디선가 역겨운 파마약 냄새가 진동하며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엄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입술에 새빨간 립스틱이 칠해져 있었다. 누가 요즘 촌스럽게 그런 립스틱을, 엄마……. 여전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때 핸드폰 벨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강성준 씨 핸드폰이죠?”

“예. 제…제가 강성준인데요.”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김성식 경사입니다.”

“예? 그…그…그런데요?”

난데없이 경찰서라니? 나는 아직도 가위에 눌려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부인 되시는 분이 폭행사건 피의자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폭행, 피의자……. 나와는 상관없는 세계의 용어들이 주는 생경함이 비로소 내 정신을 차리게 했다.

“예? 포…포…폭행사건이라뇨?”

“자세한 건 여기 와서 들으시고요. 바로 경찰서로 좀 오십시오.”

부랴부랴 차를 몰고 경찰서로 향했다. 권 교감이 폭행사건 피의자로 경찰서에 잡혀 있다고? 누군가가 꾸며냈다 해도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이상한 하루다. 나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가위에 눌려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관의 조그만 철제 책상 앞에 권 교감이 거대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장면 역시 비현실적

닥치고 나면 지레 겁먹었던 것만큼은 두렵지 않다. 나는 한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정신을 차렸다. 설거지를 했다. 그 다음 세탁기를 돌린 뒤 간단히 아래층만 청소를 했다.

커피 한 잔을 타서 다시 소파에 앉았다. 저녁때 권 교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한다. 중요한 얘기잖아, 라고 권 교감이 반문한 것은 내가 하는 말에 따라 결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국만은 면할 수 있다는 여지를 강력히 암시한 것이다.

내가 해야 할 말은 두 가지다. 조미영과 왜 잤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두 개의 문항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 애와 잔 이유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정해질 테니.

왜 조미영과 잤느냐? 답변은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 조미영을 사랑한다. 아니면 한순간의 실수였다. 여우같은 그 애의 유혹에 넘어갔다, 라는 부연설명과 함께.

솔직히 나는 모르겠다.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생각해본다 해도 답이 찾아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내 마음 속 진실은 중요치 않을 것이다. 권 교감이 듣고 싶은 것은 진실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다.

점심도 거르며 내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뭐라 말할지 궁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나는 권 교감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럼에도 꼼짝도 않고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던 건, 너무나도 분명한 그 전제가 나의 어떠한 번민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오후 5시쯤이었다. 소파에 웅크린 채로 설핏

이었다. 권 교감이 고개를 들어 나를 흘끔 쳐다 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 아줌마가 부인 맞습니까?”

머리를 짧게 깎은 경찰관이 나를 훑어보며 물었다. 아줌마라니? 권 교감에겐 적절치 않은 호칭이다.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

“예.”

“염병할!”

경찰관이 손에 권 볼펜을 책상 위로 던지며 꼴을 냈다.

“원래 이 아줌마 이래요? 꼴통도 이런 꼴통이 없어. 도대체 입을 열어야지. 이름이 뭐냐 해도 먹통, 사는 데가 어디냐 해도 먹통. 네 시간째 이려고 앉아 있다 겨우 한다는 말이 남편 불러 달래. 속 터져서 이 짓 해먹겠나, 어디…….”

그 짓 하라고 나라에서 월급 주는 거요. 그런데 내게 왜 반말이야? 나보다 몇살은 어린 것 같은데. 경찰관에게 즉각적인 분노와 적의를 느꼈다. 더구나 교감선생님께 꼴통이라니. 하지만 나는 경찰서에 붙잡혀온 피의자의 가족이다.

“죄…죄송합니다. 어…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열두 시 반경 권 교감이 조미영이 다니는 방송국에 찾아와서 면회신청을 했고, 방문증을 교부받고 방송국 로비에 서 있다 조미영이 내려오자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다는 것이다. 바닥에 나자빠진 조미영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비원들에게 사지가 붙잡힌 권 교감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넘겨졌다는 것.

“무슨 여자 편치가 그렇게 세? 경비원 말로는 딱 한 방 어퍼컷을 날렸다는데, 피해자가 완전히 쪽 뺏어버렸어. 원 참, 세상에.”

경찰관에게 더 이상 들을 얘기는 없다. 이게 전부다. 지금까지 욕망과 당위 사이의 아찔했던

긴장에 비해 너무도 싱거운 결말이다. 기껏 어퍼컷 한방으로 끝날 얘기였다니. 픽, 하고 웃음이 새어나오며 힘이 빠졌다.

아무래도 현실 같지 않았다. 나의 현실과 동시적으로 달리고 있는 다른 차원의 현실로 게다가 순간 이동한 것만 같다. 토끼굴 속에 빠진 엘리스처럼.

“그…그…그럼 어…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가 어떻게 되요? 구속이지. 진단서가 나와 봐야겠지만, 턱뼈가 나갔다는 것 같은데 최소 4주는 나오겠구먼. 더군다나 피해자가 ○○방송 정치부장이라며? 다른 사람도 아닌 기자를 때렸으니 대통령이 온다 해도 절대 못 빠져나갈 거요.”

경찰관이 책상에 바짝 다가왔으며 권 교감에게 고함을 질렀다.

“아줌마! 이제 묻는 말에 대답해요. 남편까지 데려다줬으니.”

“자…자…잠깐만요.”

나는 경찰관에게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니,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머…먼저 지…집사람과 잠깐 얘…얘기 좀 할게요.”

경찰관이 나를 잠시 쳐다보다 책상에서 일어섰다.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하는 과장된 톤으로 혀를 차며.

“커피 한 잔 빼먹고 올 테니 그 동안에 빨리 끝내쇼. 이를 어찌나? 걸보기엔 멀쩡한 아줌마 같은데…….”

나는 권 교감이 앉은 의자를 나를 향해 잡아당겼다.

“왜 그랬어? 꼬…꼭 이래야 했어?”

권 교감이 다시 나를 빤히 쳐다보다 고개를

돌렸다. 새빨강계 핏물이 일렁이는 눈 속에 어려 있는 게 뭔지 알 수 없었다. 원망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체념 같기도 하고.

“이제 어…어떡해?”

“감옥 가야지 뭐.”

권 교감의 목소리가 잠겼다. 대신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감옥은 아무나 가? 하…학교는?”

“할 수 없지. 이제부터 자기가 먹여 살려.”

“이…이…이렇게 될 줄 몰랐어?”

“생각 안 해봤어.”

어쩌면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생각 못했을지도 모른다. 경찰서에 붙잡혀와 구속까지 될 거라곤. 어쩌면 조미영에게 어퍼컷 한방을 날릴 생각도 없었는지도.

문득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마른하늘에서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문득 권 교감에게, 조미영에게, 그리고 나에게.

전혀 예측할 수 없던 돌발 사태에 대처할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다.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권 교감에게 더 이상 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권 교감이 뭐라고 해결책을 얘기해주길 기다리며 책상에 머리를 처박았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변호사 같은 거 쓸데없이 댈 생각 말고.”

권 교감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답답한 가슴속에서 부아가 치밀었다. 괜히 소리를 질렀다.

“쓰…쓸데없는지 있는지 당신이 뭐…뭐를 안다고.”

권 교감이 소릴 지르는 나를 노려보곤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잠시 후 권 교감이 갈라진 쇠소리로 말했다.

“내 말 잘 들어. 미영이 년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마. 절대로. 알았지?”

그리고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며 씩씩하게 덧붙였다.

“자기가 날 두 번 죽일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야.”

나는 권 교감의 가없는 자존심에 울컥하며 덩달아 비참해졌다.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빠졌다. 조미영에 대한 적의를 느낀 것이다. 물론 몹시도 부당하고 근거 없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한두 달만 가 있으면 집행유예로 나올 거요.”

종이컵을 한손에 들고 자리로 돌아온 경찰관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조서 꾸려야하니깐 남편 분은 그만 돌아가시죠.”

권 교감이 짧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이제 집에 가. 나중에 갈아입을 속옷이나 넣어줘.”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돌아 나오는 등 뒤로 경찰관이 권 교감을 심문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름은?”

“권윤덕.”

“주소는 어딥니까?”

“서울 종로구 평창동 ○○○번지.”

“직업은?”

“교사입니다.”

“아줌마 정말 선생님 맞아요? 어디 학교요?”

“○○여자중학교.”

문을 나오기 전에 뒤돌아보았다. 권 교감이

깔고 앉아 있는 접이식 철제 의자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다. 울컥 울음이 쏟아지려할 만큼 몹시도 속상했다.

조미영은 여의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럭비선수 헬멧 비슷한 보정기구를 뒤집어쓰고 누워 있었다. 가뜩이나 작은 얼굴이 보정기구에 가려 눈밖에 보이지 않았다.

“어...어떻게 된 거야?”

내 물음에 조미영이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 웃었다.

“그건 내가 물을 소리다. 이런 날벼락이 세상에 어디 있니? 권윤덕이란 사람이 면회를 왔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갔지. 윤덕이가 날 찾아올 일이 없잖아? 그런데 진짜로 윤덕이가 로비에 서 있더라고. 그래서 윤덕아 웬일이니, 하며 손 흔들고 다가갔는데 눈앞이 번쩍하는 거야. 그게 끝이야. 윤덕이한테 맞았다는 사실도 여기 와서 알았어. 말 그대로 날벼락이었던 거야.”

아직도 황당한 듯 조미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윤덕이가 왜 저래? 넌 알 거 아냐?”

“너랑 자...잔 걸 알았어.”

“그래? 어떻게?”

조미영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모...몰라. 아침에 너랑 자...잖냐고 묻더라고.”

“넌 뭐라고 대답했어?”

“아무 말 모...못했어.”

조미영이 갑자기 소리 내어 웃다가 턱을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다.

“웃으면 아프단 말이야. 웃기지 마. 그 상황에

서 아무 말 안하면 어떻게 하니? 안 잤다고 잡아땀어야지. 하긴 나의 꿈진 거짓말 못하니까.”

조미영이 눈빛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저...저녁때 얘기하자며 그냥 추...출근했어. 그런데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됐다 이거지. 넌 어때? 이제 어쩔 거야?”

“모르겠어. 저...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마...많이 다쳤어?”

“턱뼈가 골절되었다는데 심하진 않은가봐.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 집에서 한 주 더 쉬면 될 것 같だね. 잘됐어. 핑계 김에 대선 끝날 때까지 폭 쉬지 뭐. 지금 윤덕이는 뭐해?”

“겨...경찰서에 있어.”

“정말?”

조미영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이 펄쩍 뛰었다.

“아, 그렇겠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경찰서에선 뭐래?”

“구...구...구속될 거래.”

나도 몰래 눈물이 글썽거렸다.

“구속? 말도 안 돼. 너 차 가지고 왔지?”

“응. 근데 왜?”

조미영이 나를 흘겨보며 소리를 질렀다.

“뭐가 왜야 왜는? 너 지금 나한테 가해자 가족으로 온 거 아냐? 용서해달라며 빌려고 말이야. 근데 뭐하는 거야? 네 마누라 구속되는 거 보고만 있을 거니?”

권 교감을 빼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머리에 보정기구를 뒤집어쓴 채로 조미영이 수사과장실과 서장실을 들락거리며 애를 썼다. 권 교감에게 턱이 깨지도록 맞은 일은 벌써 잊은 것 같

내가 실수했어. 정말 실수했어. 내가 잠깐 돌았던 거야. 맞아. 돌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있겠어? 그때 많이 취했었어. 술김에 한순간 유혹에 넘어갔던 거야.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맹세해. 아예 술도 끊을게. 정말이야.

이젠 이런 말이 소용없게 되었는지 모른다. 자기에게 뭐라고 해명할지 하루 종일 생각해보라 하고는 권 교감이 스스로 답변을 제시했다. 채 만나절도 못 기다리고 조미영에게 어퍼컷 한 방을 제대로 날림으로써, 권 교감이 조미영을 단죄하는 순간 나의 죄는 사해졌다. 권 교감의 판결문에 나는 오로지 요망한 계집에게 흘린 피해자일 뿐이다.

권 교감은 절대 무모한 사람이 아니다. 체구가 커서 다소 둔한 인상을 주긴 하지만 매사 용의주도하다. 그런데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 그것도 뉴스를 만들어내는 방송국까지 찾아가서 대형 사고를 쳤다. 믿기 어려운 일이다. 왜 그랬을까?

모든 것을 걸고라도 나를 지키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조미영에게 과시하려 했던 걸까? 아니면 혹시 내가 모범답안과는 다른 답을 내놓을 여지를 미리 차단하려 했던 걸까? 어떤 목적이었던 결과는 권 교감의 완전한 패착이다. 어차피 나는 모범답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번 게임의 위너는 누가 봐도 조미영이다.

집에 돌아오자 권 교감은 거실 소파에 꼼짝도 않고 웅크렸다. 아무런 말도 없이 켜있지도 않은 텔레비전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물 받아줄 테니 뜨거운 물에 몸을 좀 담가보라는 내 말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 잔 마시고 잊으

았다. 표정만 보면 오히려 속 시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땀을 흘리며 경찰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조미영의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특별히 고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웬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다.

“잊지 마. 내가 윤덕이 구한 거.”

권 교감의 훈방이 결정되자 조미영이 활짝 웃으며 내게 말했다. 이번엔 자기가 권 교감의 턱에 강렬한 펀치를 올려붙였다는 듯 통쾌한 표정이었다.

동물원에 들어온 북극곰은 이미 야성이 제거되었다. 권 교감은 잔뜩 풀이 죽어 있었다. 보호실 창살 밖에 서 있는 조미영을 보곤 고개를 들지 못했다. 조미영에게 절대로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던 자존심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윤덕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 차 뒷좌석에 앉은 조미영이 권 교감의 뒤 통수에 대고 말했다. 권 교감은 고개를 무릎에 파묻은 채 아무 대꾸도 못했다.

“하긴 고맙다는 말은 좀 그러네. 그치? 아무튼 우리 이걸로 통 치는 거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여자가 다짜고짜 주먹질이니?”

나는 병원 현관 앞에 차를 세웠다. 뒷좌석 차문을 열어주는 내게 조미영이 속삭였다.

“봤지? 누가 위너인지. 위너니까 관대할 수 있는 거야. 핑이야, 넌 이제 완전히 내 거야.”

조미영이 슬쩍 내 엉덩이를 토닥이곤 병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라는 뜻으로 내놓은 양주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내 생각과는 달리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았다. 아무래도 죄 씻김의 의식이 필요했다.

“여보.”

나는 거실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자...잘못했어. 나 자신도 이해 못할 이...일 탈이 있어. 그냥 뭐가 다...답답했던 것 같아. 당신 말대로 너무 가...간헐 살아서 그런가봐.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거야. 조미영 그 애한테 트...특별한 감정 있는 건 아니야. 잠깐 동요됐던 건 인정해. 오랜만에 만나 잠시 예전 감정이 느껴져 호...혼란했던 거야. 당신 알잖아? 나 당신 없으면 하...하루도 못사는 거. 이제 다 꼬...끝난 일이야. 믿어줘. 진심이야.”

나름대로 나는 매우 성실하게 말하려 애썼다.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반추해가며. 맞아. 이거였어. 잠시 미쳤던 거야. 내가 어떻게 권 교감을 배신할 수 있겠어.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진심일 거라고, 아니면 최소한 진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지기도 했다.

그런데 권 교감의 귀에 내 말은 한마디도 들어가지 못했다. 권 교감은 꺼져 있는 텔레비전만 여전히 바라본 채 눈물을 글썽였다. 민망하고 허탈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나는 반복 버튼을 눌렀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드...들어봐. 나도 내 자신을 이해하지.....”

그때다. 권 교감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무서웠어. 죽을 것만 같았어. 보호실 창살을 보는 순간 넋이 나가버렸어.”

울음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괴이했다.

아직도 공포에 사로잡힌 듯 섯소리가 났다. 꺼억,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소리도 났다. 털썩 겁이 났다.

“감옥에 가다니, 내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 내가 어떻게?”

권 교감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내 팔을 잡았다.

“자기야, 알아? 누가 날 여기서 빼내주기만 한다면 자기를 미영이 그넌한테 넘겨줘도 좋고 생각했던 말이야. 아까 미영이가 날 그 안에서 빼내줬을 때 난 고맙다고 그넌한테 절할 뻔 했다고! 내 남편 유혹해 함께 잔 그넌한테 말이야! 이게 뭐야? 난 뭐야? 뭐하는 년이냐고? 이러고도 내가 살아야 해?”

권 교감이 어린애처럼 발버둥을 치며 바닥을 굴렀다. 나는 권 교감을 힘껏 끌어안았다.

“여보, 제발 진정해. 내가 저...정말 잘못했어.”

나도 울음이 쏟아졌다. 내가 권 교감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새삼스런 깨달음이 몰고 온 회한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울음이 채 그쳐지기도 전에 혼돈이 왔다.

권 교감에게 나쁜 놈이란 건 분명하지만, 내 욕망에 솔직했던 것도 잘못된 것일까? 스스로 들여다볼 여지도 없이 권 교감에게 종속되어온 나의 욕망은 정상적인 것일까? 언제까지라도 나의 욕망은 하찮은 것이어만 할까? 다른 이는 그렇다 하더라도 진정 나 스스로도 나의 배신을 비난해야 하는 걸까?

울다 기진한 권 교감이 이층 침실로 올라갔다. 나는 그대로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 정신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루

였다. 피곤했다. 눈이 감겼다.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었다.

섬뜩한 느낌에 잠이 깼다. 불이 꺼져 있었다. 커튼 채로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목이 말랐다. 나는 소파에 누운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맞은편 소파에 뭔가 시커먼 것이 눈에 들어왔다.

“뭐...뭐...뭐야?”

“나야.”

권 교감의 목소리다.

“안 잤어? 어...언제 내려왔어?”

권 교감은 아무 대꾸 안했다. 점차 권 교감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다. 소파에 똑바로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괜히 목이 조렸다. 권 교감이 달려들어 두 손으로 내 목을 조를 것만 같았다.

“부...불은 왜 안 켜고?”

나는 전등 스위치를 올리려 일어섰다.

“그냥 놔둬. 이게 좋아. 한 잔 할 거야?”

권 교감이 탁자에서 술잔을 들며 물었다. 아까 내가 내뱉던 양주다.

“아니.”

대신 나는 식탁으로 가 물을 한 잔 따라 마셨다. 부엌 유리창에 방범등 불빛에 비친 나무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갑자기 머리가 으스스해지며 한기가 느껴졌다. 권 교감 앞에 마주앉기가 두려웠다. 어정쩡하게 식탁 주위를 서성였다.

“뭐해? 여기 와 앉아봐.”

나는 권 교감 맞은편에 다시 앉았다. 몸을 잔뜩 웅크리고 권 교감의 말을 기다렸다.

“조미영 그넌... 아냐, 욕을 해선 안 되지. 그 애 사랑해?”

잠시 어리둥절했다. 이미 지나간 얘기가 아니

었나? 아마 권 교감의 대본에도 없을 대사를 왜 꺼내는 거지? 이 질문은 죽어도 하기 싫어 낮에 그 난리를 뿔던 게 아니었나?

“나 지금 화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편하게 얘기해봐. 자기가 정말 그 애를 사랑한다면 한번 달리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야.”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꾸 예상과는 다른 쪽으로만 흘러간다.

“왜 또...또 그래? 아닌 거 알잖아?”

“자기가 그 애한테 그랬잖아? 보고 있어도 그렇다고.”

“뭐?”

순간 내 몸으로 고압전류가 훑어 내렸다. 머리끝이 바짝 솟아올랐다. 뇌 속의 회로가 순식간에 타버렸다.

“호...호...호...혹시 다...다...당신.....”

아냐. 아닐 거야. 말도 안 돼. 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봐...봤어? 내 메일?”

“응. 미안해.”

“어...언제부터?”

“지난봄 자기 차 샀을 때부터. 그때 자기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

“그...그...그럼 뭘 어...어디까지?”

“모두 다. 전부.”

나는 천길만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눈앞에 버티고 앉아 있는 권 교감이 한순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지난봄부터 그 끔찍했을 것을 읽어오면서도 내게 단 한 번도 내색을 하지 않았다. 무섭다. 내가 아는 내 아내 권 교감이 아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며 경련이 일어났다.

“미안하다는 생각은 했어. 하지만 잘못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 난 자기의 보호자니까. 자기를 지켜야만 하니까. 자긴 내 모든 것이니까.”

권 교감은 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무시했다. 나지막하게 천천히 자기 얘기를 계속했다.

“자기가 잘못 가는 걸 막으려고 내 탄엔 죽을 힘을 썼어. 다시는 발을 딛지 않겠다고 고향까지 자기를 데리고 가 눈물로 호소도 해봤어.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으로 협박도 해봤고. 하지만 소용없었어. 자긴 멈추지 않았어. 갈 데까지 가버렸어.”

내 귀에 권 교감의 말은 들어오지 않았다. 오로지 권 교감이 읽고 경악했을 은밀한 문구들만이 머릿속에 줄줄이 지나갔다.

“자긴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와 다름없어. 난 그런 아이들을 수도 없이 봐왔으니 잘 알아.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수없이 맹세해도 또다시 그럴 거라는 걸. 자기 의지론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오늘 낮에 미영이를 찾아갔던 거야.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까, 자기의 보호자로서 내가 대신 나섰던 거야. 물론 미영이의 머리끄덩이라도 잡아채려고 간 거는 아냐. 그 애 앞에서 무릎을 꿇고라도 하소연하고 싶었어. 자기한테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기서 멈추라고, 또다시 자기를 농락하고 버리면 영원히 망가질 것이라고. 그런데 그 애 얼굴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주먹질을 했어. 아마도 열등감 때문이었을 거야. 이십년도 넘게 내 안에 쌓여 있는…….”

권 교감이 입술을 깨물곤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오늘 난 깨달았어. 난 자기의 보호자가 못 된다는 것을. 자긴 내 모든 것이라고 믿어 왔는데 그게 아니란 것을 말이야. 날 감옥에만 안가도록 해준다면 자길 조미영 그 애한테 줘버려도 좋다고 생각했거든. 나도 믿을 수가 없지만 사실이야. 정말 미안해. 자기 메일 훑쳐본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마...마...마...말을 했어야지. 하...하...한번이라도. 어떻게 그 꼬...꿈쩍한 것들을 지금까지 읽어왔단 말이야. 당신이 너무 무서워.”

숨통이 막혔다. 나는 내 절망의 바닥을 보았다. 권 교감에게조차 나의 존재는 없었다. 지난 이십 몇 년간 권 교감이 함께 산 것은 나의 실체가 아니었다. 제 맘대로 그린 그림일 뿐이었다. 그리고 제 맘대로 지울 수 있는.

“나야말로 뭐야? 주...주먹질을 해도 나한테 했어야지. 다...당신한테 나는 뭐냐고?”

나의 찌질하고 불쌍한 영혼은 더 이상 견뎌내질 못했다. 결국 발작을 일으켰다.

목구멍에서 수도 없이 별레들이 꾸물꾸물 기어 나왔다. 그러다 귀에서 콧구멍에서 나중엔 눈 속에서도. 펜싱 연습실로 뛰어 들어가 칼을 들고 보이는 대로 후려치다 유리벽에 머리를 들이박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권 교감이 집을 나갔다. 몇 번이고 말했다. 다 잊고 새로 출발하자고. 하지만 권 교감도 느꼈을 것이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걸. 나는 그저 방관했다. 할 수 없지 뭐, 라며.

누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산술적 계산은 제삼자의 관심사항일 뿐이다. 당사자들에게는 깨졌다는 현실만이 의미를 갖는다. 깨지는 순간 모든 게 부질없게 된다. 나와 권 교감은 이미 깨졌다는 엄정한 현실을 직시했다. 이것이 모든 불륜의 결말이 아닐까? 지극히 상투적인.

물론 권 교감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 그 만큼 권 교감에 대한 분노도 아직 그대로 있다. 그러나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죄책감과 분노는 지난 이십 몇 년 간 비교적 화목하게 살아온 세월로 어느 정도는 희석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새삼스럽긴 하지만, 문제는 나와 권 교감 사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현재로서는 이걸 풀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시작과 끝이 영켜 있는 실타래는 우선 가위로 끊어내는 수밖에 없다. 차분하게 풀어낸 다음 다시 묶어 어울리는 나중의 일이다.

나는 권 교감과 이대로 영원히 갈라서게 될지, 아니면 얼마 후에라도 다시 합치게 될는지 생각해 보지를 못했다. 지금으로서는 사치스러운 생각일 뿐이다. 권 교감 없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나는 바로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절망에 빠져버렸다.

스스로도 놀라웠다. 땀줄이 잘려졌는데도 태아는 죽지 않았다. 땀줄이 필요 없을 만큼 태아가 자생력을 갖게 되었던가, 아니면 애초부터 땀줄은 가상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처음 며칠은 몸살을 앓듯이 방구석에 쓰러져 있었다. 그러다 일어나 밥을 해먹고 청소를 했다. 번역 일도 다시 시작했다. 물론 몹시 불안했다. 드넓은 저택 안에서 영원히 미아가 될 것만

같았다. 그러다 깨달았다. 불안의 원인은 권 교감의 부재가 아니라 나의 부재임을.

나는 나의 실재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부지런히 움직였다. 깎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잔디밭을 다시 깎았다. 내가 땀 흘린 노동으로 말끔하게 정리되어가는 잔디밭의 푸른빛에서 나의 실재함을 느끼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런데 존재는 역시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 자신의 실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인가 보다. 며칠 후 소파에 누워 9시뉴스를 보다가 나는 용수철이 튀듯 벌떡 일어섰다.

사건이 터졌다. 드디어 도둑과 여배우의 혈전이 벌어졌다.

오늘 새벽 경기도 부천시 소재 상동호수공원의 산책로 부근에서 흥기에 찢린 번사체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조회 결과 피살자의 신원은 향년 56세의 고동만 씨로 밝혀졌습니다. 피살자는 왕년의 톱스타 유미연 씨의 자택과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적이 많은 산책로 부근에 사체가 유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살인범이 범행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경찰은 원한 등에 의한 살해로 보고 피살자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노환으로 자택에 칩거 중인 유미연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혀 짐작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食道樂

순천식당

따끈~한 밥에 보얀 조기 한 조각. 유명 통조림 광고 문구는 흰 쌀밥에는 짭조름한 반찬이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이용해 유명한 카피를 만들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 밥에 통조림 햄을 올려먹는 것보다 노릇노릇 구워진 생선을 올려먹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바다를 누비며 염분이 가득 밴 생선은 따로 양념을 하지 않고 구워먹는 것만으로도 바다의 짭조름함을 맛볼 수 있어 선조들도 사랑한 식문화다. 흰 쌀밥과의 궁합이 최고라 지

금까지도 사랑받는 반찬인 셈이다.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생선구이같지만 가게마다 맛이 천차만다. 생선 비린내가 나는 곳부터 생선살이 푸들 푸들 건조해지는 곳까지 노하우 없는 식당도 있다. 안중 '순천식당'은 전라도 순천에서 맛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지역 맛을 그대로 가져왔다. 꼬막무침부터 메추리알 조림, 각종 나물 요리도 전라도 손맛을 느낄 수 있다. 개성

있는 양념들로 버무리진 밑반찬도 푸짐해 밥 한 공기를 쉽게 비울 수 있다.

생선구이 중자를 주문하면 고등어구이와 조기 구이가 함께 나온다. 커다란 고등어에 조기까지 맛볼 수 있어 다양한 생선구이를 맛볼 수 있는게 장점이다. 오동통한 속살에 속까지 들이찬 순천 바다의 맛이 그대로 담겨있다. 또 다른 별미 동태탕도 인기가 좋다. 빨간 고춧가루나 조미료로 얼큰한 맛을 낸 것이 아닌 동태와 야채가 어우러진 시원한 맛을 자랑한다. 큼직하게 썰어넣은 파와 버섯, 속살이 보얀 동태가 한 데 어우러져 얼큰함이 그만이다.

이 곳에서는 멀리 순천까지 갈 필요없이 전라도 손맛을 한상 가득 느낄 수 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음식 장인을 찾아 TV 방송에서도 찾아올 정도다. 평택항에서 제대로 된 생선 요리를 맛보고 싶을 때 추천한다.



순천식당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114번길 46



ESSAY

울산 토박이가 추천하는 울산 여행지



한지순

수십 년째 울산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공업 도시’이다. 여기에 젊은이들 사이에는 ‘노잼’ 이미지까지 더해졌다. 이런 오명을 씻고자 울산에서 나고 자란 필자가 애정을 담은 울산 여행지를 추천하려 한다.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번 여름 휴가지는 울산이다!”를 외치게 될 것이다.

Chapter 1. 자연코스

스위스에 알프스가 있다면 울산에는 영남 알프스가 있다. 경남 밀양과 울산 울주군의 7개 산이 알프스처럼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영남 알프스. 이름만 들으면 위화감이 들지만, 별 좋은 날 경남 밀양에서 출발해 울산 울주군으로 이어지는 영남 알프스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봄에는 봄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철마다 아름다운 영남 알프스를 추천한다.

특히 영남 알프스 중 하나인 간월산의 간월재 등산코스는 가볍게 산책하기도 좋은 코스다. 트래킹 코스와 나란히 있는 역사군락지는 물론 한 시간 반쯤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휴게소에서 먹는 라면은 수영하고 먹는 라면만큼이나 맛있다. 건강과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의 간월재를 추천한다.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곳, 간절곶은 울산 울주군에 위치해 있다. 이제는 워낙 명소로 유명해져 인스타그램의 대형 카페가 속속 들어서고, 매주 나들이객으로 잔디밭이 붐빈다. 간절곶의 바위 풍경, 잔디밭, 파란 바다, 들이치는 파도는 많은 인파와 자본주의 냄새(?)에도 간절곶을 찾게 되는 이유이다.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가족들이 도란도란 바다를 낀 산책로를 거니는 간절곶을 추천한다.



Chapter 2. 체험코스

서해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적당한 파도와 수온 등의 조건이 어우러져야 서핑을 잘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의 진해해수욕장은 떠오르는 서핑 성지로, 매년 세계 윈드서핑 대회가 열리고 있다. 또, 진해 해변에 자리한 울주 해양레포츠센터에서는 카누, 카약, 당기요트 등 다양한 수상레저 체험을 할 수 있다. 다양한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는 진해해수욕장을 추천한다.

Chapter 3. 축제코스

울산 시민의 자랑,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매년 여름 납량축제가 펼쳐진다. 평소 은하수길로 유명한 십리대숲은 축제 기간 동안 귀신들의 파티로 변신한다. 페이스페인팅과 귀신 의상 체험, 뮤지컬과 연극 공연, 그리고 메인 이벤트인 호러 트래킹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태화강 납량축제를 추천한다.

올해로 22회째 개최되는 울산 재즈 페스티벌은 매해 다양한 장소에서 열리고 있다. 2019년에는 울산 북구의 정자해수욕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이틀 동안 공연이 열렸다. 시원한 여름 바닷바람과 함께 듣는 재즈밴드의 다채로운 공연. 엄청난 규모의 공연은 아니지만 가볍게 찾아가기 좋은 울산 재즈 페스티벌을 추천한다.



ESSAY

남미에서 보낸 지나간 나의 두 달



박소민

나는 백수였을 때 취업하면 저급한 돈으로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게 소원이었다. 여기 경기평택항만공사로 취업한지 1년이 가까워지는 동안 이놈의 코로나가 끝나지를 않으니까 제대로 된 여행을 못하고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 갑갑할 때마다 사진첩에 쌓인 여행사진을 돌아보곤 하는데 마스크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다시 마스크를 벗고 여기저기 여행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며 아쉬운 대로 남미에서 보낸 지나간 나의 두 달을 추억해보려 한다.

아르헨티나 이과수 폭포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국경에 위치한 이과수 폭포다. 그중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쏟아 붓는 이곳은 이과수의 끝장판 악마의 목구멍이다. 이 폭포를 보려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부터 22시간동안 버스를 타고 갔었다. 가는 길에는 친구랑 둘이 폭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고생할 일이나고 투덜렸는데 눈앞에 무섭게도 쏟아지는 폭포수가 보이는 순간 취소 뉘엿뉘를 뻐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휩쓸려 떠내려갈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페리토 모레노 빙하

아웃도어 브랜드로 익숙한 파타고니아 지역의 동쪽, 페리토 모레노 빙하다.

사실 나는 일회용품도 막 쓰고 환경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끝없이 늘어진 빙하 앞에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몇 분마다 굉음을 내며 무너지는 빙하를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던 지구온난화가 혹 실감이 됐다. 당시에 카페에서 텀블러만 이용하고 자동차도 안사겠다고 다짐하면서 지구야 미안하다~~를 외쳤던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오늘 이 에세이를 쓰는 덕분에 다시 지구 지키기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라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다. 몇 년에 한번 비가 올까말까 한다는 이곳에서 신기하게도 나는 비를 쫓딱 맞으면서 여행했다.

그때는 왜 하필 지금 비가 와서 내 여행을 방해하나 원망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사막에서 비를 맞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호수

많은 사람들이 남미하면 먼저 떠올리는 관광명소인 우유니 소금호수이다. 얇은 물에 반사되어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고도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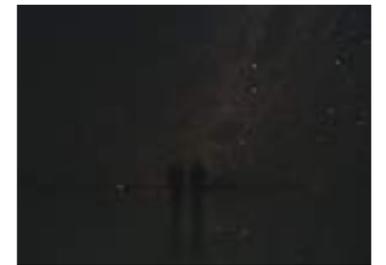
해가 지고 밤이 온 우유니는 하늘 가득하게 흐르는 은하수를 보여준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지평선 위 여기저기서 별이 쏟아지고 있었고 지구는 둥글다는 말이 왠지 모르게 실감나는 시간이었다.



페루 비니쿤카

일명 무지개산이라고도 불리는 비니쿤카다. 이곳은 지구온난화로 만년설이 녹아서 몇 년 전 새로 발견된 관광지라고 한다.

페리토 모레노 빙하 앞에선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는 걸 보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여기서 지구온난화에 눈이 녹아내린 덕분에 멋진 곳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게 모순적이라고 느껴졌다.



페루 마추픽추

내가 남미여행을 가게 된 첫 번째 이유인 페루 마추픽추이다. 해발 고도 2,400m 산꼭대기를 깎아다가 정교하게 돌을 쌓아서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서 꼭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기술도 없던 아주 옛날에 이걸 쌓아올린 옛날사람들이 요즘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힘들 때 꺼내보는 별 주머니가 있다. 별 주머니에 별을 하나씩 수집해두고 힘들 때 마다 꺼내 본다고 한다. 나에게 남미 여행은 별 주머니에 넣은 별 하나다.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좋은 별 하나를 수집했다는 생각에 괜스레 든든해진다. 고생도 하고 힘들기도 했던 여행이지만 해가 바뀔수록 '그때가 아니라면 안 될' 여행으로 깊게 다가오는 기분이다.



평택 가볼만한 곳

부락산 문화공원

안성으로 넘어가기 전, 평택 끝자락에 작은 산 하나가 있다. 평지밖에 없는 지역이기에 148.3m의 작은 산이지만 평택의 대표 명산으로 꼽히는 산이다. 경사도 완만하여 산책 코스로도 좋고 목재 다리와 길 등을 조성해 안전하게 등반이 가능한 곳이다.

액티비티를 통해 재밌고 스틸있게 자연을 즐기는 방법도 있다. 부락산 문화공원 산림체험장에는 자연 친화적 레포츠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남녀노소 다양한 코스로 액티비티가 가능하다. 이지 코스, 노멀 코스, 하드 코스 총 3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높이 170m 위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한 채 돌다리를 건너고 짚라인 등을 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은 각각 4천원, 5천원, 6천원이며 평택 시민은 1천원이 할인된다.

예약을 하고 체험장을 방문하면 성인들도 별별 뿔만한 높이의 코스가 한 눈에 들어온다. 키 큰 나무 양쪽으로 줄이 이어져있고 손으로 밧줄을 잡고 조심스럽게 길을 건너는 성인들도 눈에 띈다. 이미 3개 코스를 간단히 마친 어린이들은 한 번 더 하겠다고 성화다. 아이들은 무서운 것도 모르는 채 성큼 성큼 코스를 뛰어다니고 오히려 성인들이 한 걸음 떼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위에서, 아래에서 지도해주는 조교들은 “성인 중에 한 코스를 완료하는데도 1시간씩 걸리는 사람도 많다. 한 걸음 떼기가 무서워서 고민하는거다”라며 괜찮다고 미소를 지어준다. 코스가 어렵거나 무서워 포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조교의 안내에 따라 중간에 뛰어내려 코스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에서 인솔하고 아래에서 안내하는 교관이 있어 어린아이부터 성인들도 안전하게 체험이 가능하다.

스릴을 즐기는 코스 말고 숲의 풍광을 느낄 수 있는 산책 조성길도 있다. 시내길(40분), 숲속길(90분), 벚꽃길(150분), 역사탐방로길(170분) 구간을 선택해 도심 옆 울창한 숲길을 걷는 것도 추천한다.

부락산산림체험안내소 (031)611-4559 평택시 지산로 140번길 264



편집자 발행후기

8월이 되니 더위의 결이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눌 때만 해도 바람이 불면 서늘해지곤 했는데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미지근합니다. 사보가 처음 나왔을 때가 작년 이맘때쯤인데 그러고 보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반년간지(半年刊誌)이다 보니 글을 쓸 때쯤에 계절의 변화가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보의 첫 발간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공사는 신사업의 신호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솔개나루' 이번 호에 신사업인 대부도 경기해양안전체험관과 제부도 제부마리나 시설에 대한 소개를 주로 실었습니다. 평택항만에 그치지 않고 경기바다에 새로운 '즐길 거리'를 선사하는 사업이다 보니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고 초대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평택에 있는 문화 예술인, 즐길 거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넣어 '문화 특집호'이라는 다소 비장한 의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부디 경기 바다, 평택에 대한 풍부한 즐길 거리를 가득 느끼셨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정 어린 응원과 도움을 주신 평택항 및 경기도민 분들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와 더불어 책임 있는 운영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에도 지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주신 공사 임직원분들에게도 감사를 포함합니다.



